

<NPO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간개념 연구>

연 구 보 고 서

제 출 문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위탁한 「NPO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간개념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 용역수행기관	최소연
■ 연구책임자	최소연
■ 공동연구원	장문경 김은영
■ 연구원	강혜민 홍아영

이 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① 연구 배경	
②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서점과 도서관의 변화	4
(1) 서점의 변화	
(2) 도서관의 변화	
① 지역성과 전문성을 담는 특별한 공간	
② 수요자의 욕구를 담아내는 복합공간	
③ 도시를 살리는 문화공간	
④ 사회적 기억을 담는 박물관	
⑤ 현대 기술의 집합체	
⑥ 장소성과 결합하는 기념비적 공간	
3. NPO도서관 운영 사례	20
(1) 국내 운영 사례	
① 희망제작소 NPO정보센터	
② 성평등도서관 여기	
③ 천안NGO도서관/충북NGO도서관	
④ 나눔문화 컬렉션	
(2) 해외 운영 사례	
① 미국 Foundation Center	
② 일본 NPO도서관	
③ 타이완 자선사업 정보센터	
4. NPO도서관의 필요성	26
(1) NPO 자료 저장 및 활용의 한계와 문제점	
(2) 시민의 힘으로 변화하는 도시를 담는 역사적 공간	

(3) NPO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는 전문도서관에 대한 요구	
(4) NPO와 시민들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체험적 공간	
5. NPO도서관의 성격	32
(1) NPO도서관의 개념	
(2) NPO도서관의 내용	
① NPO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곳	
② 'Social'을 실현하는 도서관	
③ 'Action'이 있는 도서관	
④ 작은 사물을 아카이브하는 도서관	
⑤ 사서가 보이는 도서관	
⑥ 감각의 중추(네트워크 허브)가 되는 도서관	
6. NPO도서관 조성을 위한 제안	45
(1) 절차적 제안	
(2) 인적 제안	
(3) 프로그램의 제안	
(4) 공간적 제안	
8. 결론	49
참고자료 I	53
(인터뷰 참가 단체 소개)	
참고자료 II	60
(전문가 인터뷰 요약)	
참고자료 III	70
(디지털 아카이브의 예시)	
참고자료 IV	80
(참고 문헌)	

[표1-1]연구 프로세스	3
[표2-1]서점의 변화	5
[표2-2]도서관의 변화	8
[표3-1]미국Foundation Center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	23
[표4-1]NPO단체의 자료보관 현황	29
[표5-1]NPO도서관 개념도	34
[표6-2]테라스 개념	35
[표7-1]NPO도서관DB시스템 개념도	42
[표7-2]NPO도서관 설립 단계도	44
[사진1]느티나무도서관_1	9
[사진2]느티나무도서관_2	9
[사진3]네이버라이브러리_1	10
[사진4]네이버라이브러리_2	10
[사진5]Wellcome Collection	11
[사진6]이진아도서관	11
[사진7]아이디어스토어	12
[사진8]김영수도서관	12
[사진9]지혜의 바다 도서관	14
[사진10]베벨플라츠 매장도서관	15
[사진11]The Graveyard Library	15
[사진12]Biblio Teck 제공 서비스_1	16
[사진13]Biblio Teck 제공 서비스_2	15
[사진14]Biblio Teck	17
[사진15]Commons	17
[사진16]인권도서관	18
[사진17]해양도서관	19
[사진18]미국Foundation Center	22
[사진19]일본 NPO정보센터 홈페이지	24
[사진20]대만 NPO정보센터 홈페이지	25
[사진21]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_1	38
[사진22]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_2	38
[사진23]The Levinski Garden Library	38
[사진24]세월호 기억의 숲	39
[사진25]촛불집회	40
[사진26]강남역 포스트잇	40
[사진27]B플랫폼	41
[사진28]녹색당과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	41
[사진29]London Book Art Center	42
[사진30]전시 <Posters for Bookshop>	42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① 연구 배경

첫째, NPO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NPO 활동에 관한 자료의 집적이 필요하다.

NPO 활동이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산된 자료들이 제대로 아카이빙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NPO 활동의 방향과 형태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변화를 꾀하는 단체 및 소규모, 혹은 1인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일련의 사회 현상들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이 커졌다.

둘째, 시민참여로 변화시킨 시민민주주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산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공익활동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개념이 필요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시민참여의 사례를 기록하고, 성과를 정리하여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도시로서 서울의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NPO의 변화사례를 기록하고, 축적하는 전문적인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NPO와 시민들을 연계할 지점이 필요하다.

변화된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활동가들 혹은 일부 회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NPO 활동의 시대는 한계에 다다랐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통해 사회활동에 익숙해지고 일상적으로 참여할 원동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일상적으로 사회참여와 변화를 경험하고, NPO 활동 사례를 접할 기회가 필요하다.

② 연구 목적

첫째, NPO 활동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저장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찾는다.

둘째, 시민들에게 사회적 이슈 및 관련 활동들을 체험하고, 논의하고, 함께 실행해보는 복합공간으로서의 NPO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한다.

2. 서점과 도서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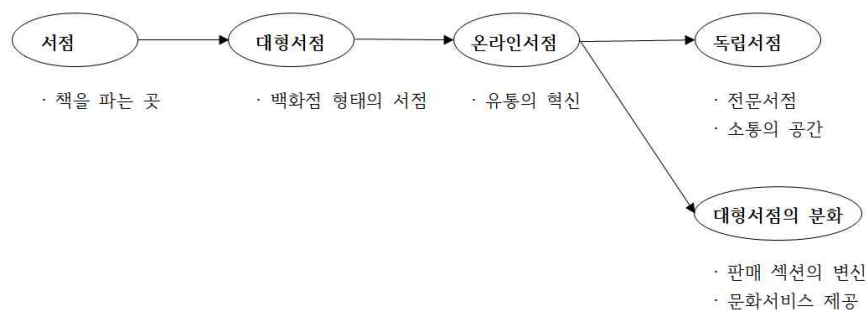
(1) 서점의 변화 (store→market→center)

서점의 형태 변화는 많은 부분 도서관에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도서관에서 채우지 못한 것, 경직된 도서관 시스템에서 발빠르게 수용하지 못한 것들을 실현해 낸다. 단순히 종이 인쇄물을 파는 곳이었던 서점은 대형 서점이 등장하면서 책과 더불어 흥미를 갖거나 구매욕을 일으킬만한 물건들을 함께 파는 백화점 형태로 발전했다. 이후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면서 유통의 혁명과 더불어 인쇄물의 혁명까지 불러왔다.

최근 서점은 두 가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첫 번째는 독립서점의 등장이다. 일반 서점의 수는 줄고 있지만 자기만의 색을 가진 작은 책방들은 2016년만 해도 서울 60곳을 포함해 전국 150여곳이 새로 생겼다. 사라지는 기존 중소형 서점의 틈새에서 북큐레이션이나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나선 독립서점이나 동네책방들의 등장 및 변화는 수 많은 책들의 발견성을 확장하고 책과 독자, 저자와 독자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¹⁾ 이들은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거나 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다.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체험활동, 문화 강좌 같은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 나아가 소규모 출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종이책의 생산이 단순한 출판을 아니라 책 자체가 갖는 형태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존재 자체로 예술작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불러왔다. 그 결과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고사할 것이라는 출판계에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형 서점들의 변신이다. 무분별한 백화점식 진열에서 벗어나, 특별한 섹션을 마련하고, 각종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마치 카페나 도서관에 온 듯 편안하게 책을 음미하고 공간의 안정감을 누리게끔 하고 있다.



[표2-1]서점의 변화

1) 이용훈, 「새로운 사서 양성과 배치 방식을 상상하다」, 도서관정책기획포럼, 2017

• **사적인 서점(한국)**

한 사람을 위한 큐레이션 책방. ‘책 처방사’라고 불리는 주인이 ‘책 처방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책을 추천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서 차트를 관리하고 예약제로 운영된다. 1시간 동안 독서 차트 작성을 포함한 상담에 집중한 후 개인에게 책을 추천할 뿐 아니라 소통과 관계맺기를 지속한다. 처음에는 주인 혼자 상담을 진행하다 한 명의 책 처방사가 더 필요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2016년부터 2년 동안 운영되었고 잠정 휴업 상태이다.

• **유어마인드(한국)**

2009년 온라인, 2010년 오프라인 서점으로 시작하였다. 국내 소형 출판사, 아티스트 개인에 의해 제작된 독립출판물과 아트북을 핵심으로 수입 서적, 음반, 굿즈를 함께 판매한다. 독립출판 문화의 기반을 만든 곳으로 평가받는다. 2009년부터 개최한 언리미티드 에디션 - 서울아트북페어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독립 출판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마켓이다. 작가, 제작자와 독자가 판매 부스에서 만나고 프로그램과 특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그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조망한다.

• **책방만일(한국)**

2011년 만들어진 인문, 사회, 환경, 문학에 대한 책을 중심으로 하는 서점이다. 책을 통해 새로운 선택과 변화를 상상해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만들어졌다. 환경, 과학, 인권 등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좋은 책들을 배치한다. 무거운 주제이더라도 읽기 쉬운 책부터 볼 수 있게 정리하고 규모가 작은 출판사의 책들이 더 눈에 띄도록 진열한다. 여러 주제의 독서모임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어 있고 서점 공간에서 소규모의 전시도 열린다.

• **B플랫폼(한국)**

서점, 갤러리, 스튜디오가 함께 있는 복합 공간이다. 복합 공간이지만 모든 주제는 책에 대한 것이다. 서점에서는 아티스트 북, 그림책, 책에 대한 책을 판매하고, 갤러리에서는 책과 그림에 대한 전시, 스튜디오에서는 책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제공한다.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어 새로운 작가를 양성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작가 지원에 쓰인다.

• **모리오카 서점(일본)**

1주일에 한 권의 책만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서점이다. 한 권의 책을

진열하고 그와 동시에 그 책과 연관 있는 사진작품이나 미술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판매한다.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책방의 대표 모리오카 요시유키의 큐레이팅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주인의 철학과 취향으로 큐레이팅 된 책들을 소개하는 트렌드의 선두에 서 있는 서점이다. 주인의 취향과 고객의 취향의 접점, 방문객과의 정서적 교감이 현재의 작은 서점들에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 블루스타킹스 북스토어(미국)

1993년 문을 연 뉴욕 최초의 페미니즘 서점. 페미니즘을 넘어 진보정치, 사회운동, 인종문제 등을 주제로 하는 책과 활동의 공간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독자층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된 독자층을 겨냥한 서점이다. 서점이자, 커뮤니티 공간, 이벤트 장소로 매일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유급 직원은 2명이고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책 구입, 이벤트 기획 등의 운영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activist)들이 모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행동하는 공간이다.

• 하우스웍스 북스토어(미국)

기증받은 책만을 판매하는 서점. 수익금은 노숙자와 에이즈 환자를 위해 쓰인다. 기증받은 책만으로 진열되지만 일반 서적의 모든 카테고리를 갖추어 놓았고 빈 카테고리는 앞으로 기증받은 책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층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카페와 2층 등에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였다. 콘서트, 북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공간 대역도 한다. 대부분의 인력은 자원활동가이며 책을 큐레이션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 p&g 웰스(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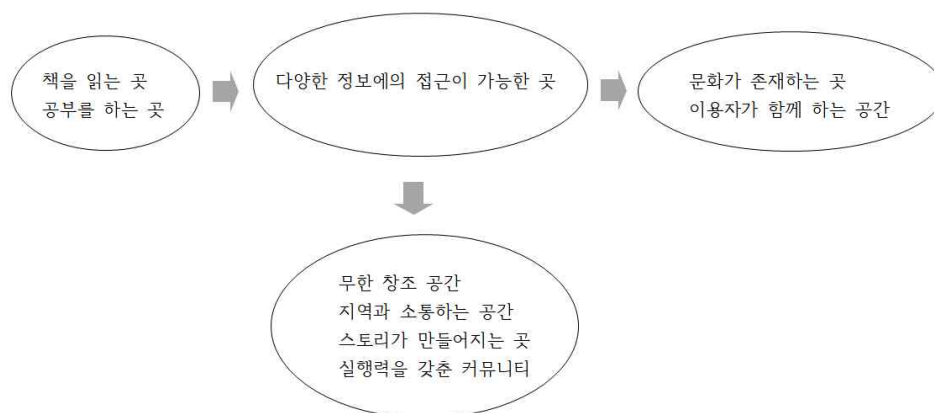
영국의 독립서점. 어른을 위한 공간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서적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낮은 책장에 배치하고 교육실도 따로 만들어서 동화책 만들기, 글쓰기 등 다양한 수업을 운영한다. 성인을 위해서도 글쓰기 강좌를 비롯해 다양한 독서 모임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

(2) 도서관의 변화

도서관의 필수조건은 문자, 매체, 공간, 사물, 이용자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이다. 이용자는 도서관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과거의 도서관은 소장 자료를 잘 관리하고, 도서관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집중하는 운영자 중심의 사고에서 운영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점들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도서관들도 이제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이나 지자체 단위에서도 ‘도서관 정책’을 중요한 시민 사업으로 논의하고 있고, 새롭게 건립하거나 재개관을 하는 곳의 경우 대대적인 수요조사와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모하고 이용되는 유연한 공간 활용이 미덕인 시대가 되고 있다.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책도 읽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²⁾



[표 2-2]도서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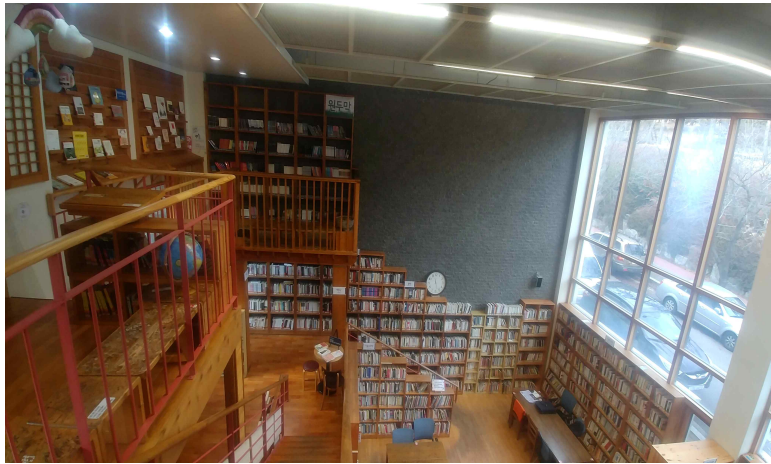
① 지역성과 전문성을 담는 특별한 공간

하나의 거대한 공공도서관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형태의 도서관 운영은 지역의 특성, 특정 분야 혹은 주체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시켰고, 접근성에 있어서도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편한 문제였다. 그런 이유에서 ‘작은도서관 현상’이라 부를 만큼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지역의 욕구를 담아내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도서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박재우, 「공공도서관의 공간 활용 방안, 도서관정책기획포럼, 2017」

더불어 분야별로 자신들의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자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들은 해당 영역의 정보 제공자 역할 뿐만 아니라 활동의 중심,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 느티나무도서관



[사진1]느티나무도서관_1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해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설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유로운’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느티나무도서관만의 독특한 도서분류법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반영해내는 아이디어다. 특히 책을 정리하고 대출하는 사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서 분류법을 만들어내고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사서로서 ‘살아있는’ 사서의 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목독회, 낭독회, 마을 토론회, 영화 감상회등 다양한 활동들도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사진2]느티나무도서관_2



• 네이버라이브러리



[사진3]네이버라이브러리_1

IT, 디자인, 건축 등의 자료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일반 열람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오직 도서관 내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적 배려를 하고 있다.



[사진4]네이버라이브러리_2

• Wellcome Collection (영국)

단순 의학 관련 도서관에서 2007년 특정 주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되었다. 의약품과 생명과 예술의 연관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독창적인 예술품과 의학적 인공물의 독특한 혼합물 등을 보여준다. 도서관 내의 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만 장소를 대관해주는 등 주제 관련 활동에 집중한다. 현대적이고 역사적인 전시 및 수집, 활발한 공개 행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Wellcome Library, 카페, 서점 및 회의 시설이 제공된다.



[사진5]Wellcom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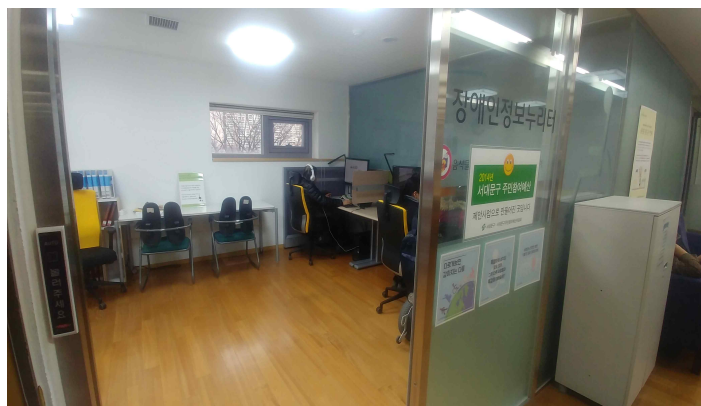
② 수요자의 욕구를 담아내는 복합공간

도서관의 본질은 교육과 연구이다. 평생교육시대가 된 오늘에는 도서관이 시민 평생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당초 교육기관으로 출발한 도서관의 역사적 본질에도 부합한다. 도서관은 모든 시민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서관은 책을 활용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유럽에서도 공공도서관 계획은 생활밀착형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 커뮤니티, 레저, 상업 등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화 방식이다. 즉 공공도서관이 독립적이고 단일용도의 시설로 계획되기 보다는 시장과 같은 일상적인 커뮤니티 거점이나 레저시설과 결합되거나 이들 시설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³⁾

• 이진아도서관

서대문구립도서관으로 딸을 잃은 가족이 평소 책을 좋아했던 딸을 위해 낸 건립지원금으로 지어진 도서관이다.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 행사와 체험형 강좌 등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사진6]이진아도서관

3) 임호균, 「지역특성별 사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과 복합시설 계획」, 도서관정책기획포럼, 2017

지역의 역사와 삶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 밀착형 도서관이다. 특히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에 크게 신경을 써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 아이디어 스토어

‘아이디어 스토어’는 철저하게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탄생한 도서관이다. 대부분 소수 이민자 출신으로 문화적·사회적으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정보 혜택에서도 낮은 이방인에 머물렀던 이들에게 아이디어 스토어는 문을 활짝 열었다. 우선 시끌벅적 소란스러운 길거리 시장 옆이나 쇼펄 안에 도서관을 들인 점이 획기적이다. 이름도 그 명칭이 주는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도서관'을 빼고 '아이디어 스토어'로 정해 친근감을 더했다.



[사진기]아이디어스토어

타워 햄릿 지역의 아이디어 스토어 다섯 곳은 모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방식으로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다섯 곳 모두 성황 중이다.

아이디어 스토어의 특징은 연간 800여 개에 달하는 평생교육 강좌들이다. 컴퓨터 사용법부터 IT와 각종 기술, 이민자를 위한 영어 교실 및 어학 강좌, 음악, 요리, 댄스, 체력 단련, 요가, 창업 교실과 구직자를 위한 직업 훈련, 이력서 쓰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좌들이 이곳에서 열리며, 매년 1만 명 정도가 등록하고 7,000~8,000명이 수강할 만큼 인기가 높다.

③ 도시를 살리는 문화공간

도서관은 현실적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다. 아프리카 지역의 당나귀 도서관(당나귀에 책을 싣고 다니는 이동도서관), 집 앞의 우체통을 이용한 도서관 등. 최근 도시재생에 관한 담론이 화두가 되면서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 서양에서도 버려진 기차역이나 낡은 우체국, 창고 등이 도서관으로 개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도서관은 인본주의 도시재생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최근 도서관의 다양성 개념은 공공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포괄적 의미의 프로그램의 다양성, 각종 미디어를 통한 학습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공간의 다양성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와 같은 변화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거점공간,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⁴⁾

도서관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책과 문화 행사, 강좌, 더불어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새롭게 활력을 찾고 싶어 하는 도시에 충분히 희망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 김영수도서관 (제주)

1968년 제주북초등학교 졸업생 김영수의 기부로 설립되었던 김영수 도서관은 유희공간이었던 창고와 관사까지 함께 리모델링 하면서 2018년 마을도서관으로 재탄생했다. 크고 넓은 건물 신축을 택하지 않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고 마을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 놓음으로 해서 제주 원도심 재생 사업에 활력을 주는 요소로 환영받고 있다.



[사진8]김영수도서관

4) 임호균, 「지역특성별 사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과 복합시설 계획」, 도서관정책기획포럼, 2017

• 지혜의 바다 도서관 (창원)

복합독서문화공간을 표방한 지혜의 바다 도서관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개관하였다.



[사진9]지혜의 바다 도서관

④ 사회적 기억을 담는 박물관

도서관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의미있게 시도된 것이 바로 ‘박물관’의 역할이다. 그것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억을 나누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저장’이나 ‘제공’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기억의 유산을 만들어내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만큼 적절한 곳은 없다고 하겠다. 만들고, 공유되고, 기억되는 과정이 살아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인 것이다.

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갇혀 있는 도서관의 이미지와 역할을 새롭게 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기억유산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기억자, 동반자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⁵⁾

• 베벨플라츠 매장도서관(독일)

독일의 베벨 광장 지하 서고에는 약 2만여권의 책을 쫓을 수 있는 빈서가 있다. 1933년 5월 10일 나치에 동조하는 독일학생연합 소속 극우파 학생들이 “비독일적 서적들을 없애버려야 한다”며 수만권의 책을 불태운 ‘나치관 분서’의 현장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더불어 세계적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가 113년 전 그의 희곡 속에서 마치 예언처럼 남긴 글귀가 적혀 있다. ‘책을 불사르는 것은 오직 시작일 뿐이다. 결국에는 사람도 불태우게 될 것이다.’ 분서에 대한 저항과 극복의 의미를 담은 도서관인 것이다.

5) 심원식, 「도서관, 기억의 동반자」, 도서관정책기획포럼, 2017



[사진10]베벨플라츠 매장도서관

• **The graveyard library (오스트리아)**

나치에 의해 훼손되어 거의 모든 기록과 비석이 사라진 곳에 예술가들에 의해 묘지 도서관이 생겼다. 홀로코스트 기간에 살해당한 해당 지역의 유대인 127명을 기록하고 비석과 같은 모양과 크기의 책장을 설치하여 유대인의 철학과 죽음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로 비치하였다.



[사진11]The graveyard library

⑤ **현대 기술의 집합체**

도서관은 현대 기술의 첨병이다. 자료 검색과 열람을 위한 프로그램 기술에 서부터 업무를 위한 시스템, 각종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최첨단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디지털화 되고 있고, 수많은 전자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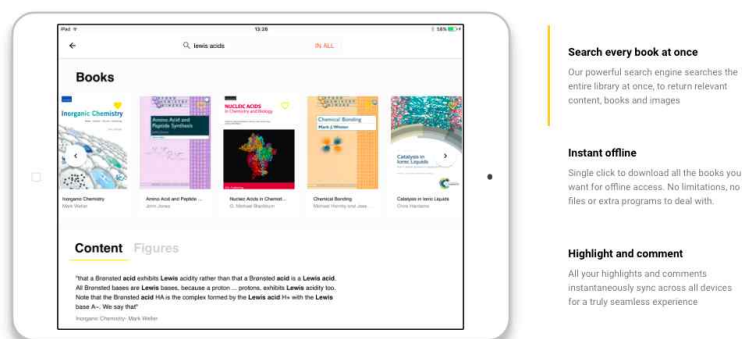
출판되고 있으며 그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검색과 이미지 구현 기술 또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급기야 책 없는 도서관이 생기고, 여러 곳에서 종이자료를 없애고자 하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 텍사스 Biblio 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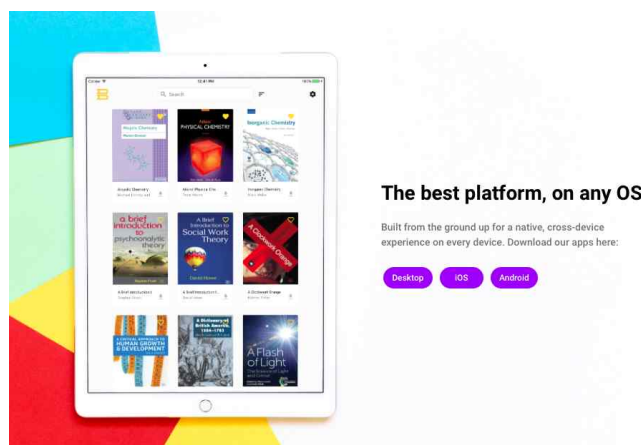
세계 최초의 종이책 없는 도서관이다. 대신 전자책 1만권과 다양한 오디오북, 교육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비치된 600여 개의 아이패드를 대출해서 전자책을 볼 수 있다. 모든 종류의 OS가 제공되는 도서관의 플랫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도서관의 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고, 관련 문장이나 이미지, 책들 또한 함께 검색할 수 있다. 클릭한 번으로 모든 종류의 책, 문서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이용자가 강조하거나 메모한 것들도 모든 장치에 동시 적용된다.

학생들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필요한 모든 교재를 참고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 필요한 책들을 제공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다.

<https://bibliotech.education/#/landing/students>



[사진12]Biblio Tech 제공 서비스_1



[사진13]Biblio Tech 제공 서비스_2



[사진14]Biblio Tech

• 미국 폴리텍 대학교 도서관 Commons

미국 폴리텍 대학교의 도서관으로 책이 없는 대신 슈퍼컴퓨터, 학생데이터센터, 시각-기술 협력실, 소프트웨어 개발실, 메이커스페이스랩 등이 운영되고 있다.

‘Commons’는 캠퍼스 중앙의 혁신-과학-테크놀로지 빌딩(미국에서 가장 발달된 테크놀로지 스페이스 중 하나이며, 26개의 교실과 로봇공학, 데이터 시각화, 3D 프린팅,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미디어 생산, 기업정신과 같은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11개의 혁신 연구소가 있다.) 2층에 위치해 있는데,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만 이루어져 있고, 학업 성취 센터, 테크놀로지 서비스 책상들이 함께 구비되어 있는 공간으로, 150,000개의 텍스트 e-book 디지털 컬렉션을 자랑한다.



[사진15]Commons

최첨단 장비와 어플리케이션들이 학생, 시설, 스태프, 방문자들을 모두 연결시킨다. Mac이건 PC건, 안드로이드건 iOS건 데스크탑이건 타블렛

이건, Xbox건 플레이스테이션이건 각자의 방식으로 대학과 도서관, 정보들을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도서관에서 ‘정보의 접근, 저장, 복구’를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업무현장에서 정보를 찾는 방식과 정보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방법, 이를 바탕으로 나온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같은 미래를 위한 훈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⁶⁾

<https://floridapoly.edu/about/divisions-and-departments/technology/>

⑥ 장소성과 결합하는 기념비적 공간

모든 도서관은 한 가지 특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 어스토어의 경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베틀시장이나 메이커스랩을 도서관 안팎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처럼 장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베벨플라츠 매장도서관’이나 ‘김영수 도서관’처럼 해당 위치에 설치됨으로써 설립의 의미가 배가되고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회적 기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도서관은 기록을 보관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록이 되는 ‘장소성’의 의미를 심분 활용하고 있다.

• 인권도서관

인권도서관은 다양한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인권단체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도서관이다. 국회 전자도서관 원문 DB를 검색·출력할 수 있는 영상



[사진16]인권도서관

실과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등이 있고, 인권 관련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인권정보조사 서비스, 인권영화 상영 개최, 인권 관련

6) 캐서린 밀러, 폴리텍대학 서비스 지원센터 부책임자

단행본 출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해양도서관



[사진17]해양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도서관은 해양문화, 해양역사·영토, 해양관련 도록 및 해양의 모든 분야 자료와 박물관학, 고고학 관련 자료 등 국내·외 전문 도서, 학술지 및 디지털매체 등을 수집·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해양문화와 박물관 관련 정보들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해양사, 해양영토, 해양문학 분야의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실에는 해양테마서고 및 일반 서고에 해양문화 및 박물관 관련 도서 45,000여 권, 어린이 해양도서 4,500권과 바다를 소재로 한 비도서(DVD 등) 2,000여 점을 비치하고 있다.

3. NPO도서관 운영 사례

(1) 국내 운영 사례

① 희망제작소 NPO정보센터

2009년 설립되어 NPO 간행물, 연간리포트, 홍보자료 위주로 자료를 구비하여 개방되었다.

각 단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자료의 활용성이 떨어져 방문자 수가 매우 적었고,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할 물리적, 경제적 뒷받침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폐지되었다.

② 성평등도서관 '여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40여개 성평등단체와 함께 여성가족재단 2층 공간에 구축하였다. 열람실, 전시공간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주의, 인권, 국제연대, 성주류화, 고용, 노동, 미디어, 문화, 예술, 폭력, 안전, 건강, 여성정책, 일가족양립 등의 주제로 자료가 분리되고, 특히 여성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의 간행물과 기록물을 아카이빙 하고 있다. 현재 성평등 관련 기록과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중이다. 포럼, 토론회, 영화 상영회, 북토크 등 비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③ 천안NGO도서관/충북NGO도서관

천안NGO도서관은 천안NGO센터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시민운동, 사회과학 도서, NPO 관련 논문 자료들을 1500권 비치하고 있고, NPO활동가와 시민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센터 부설의 정보자료실 개념으로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NGO도서관은 2013년 충북NGO 센터에 개관하였다. 시민사회·NGO 관련 도서 200권을 비롯해 철학·사회·경제·역사·여성·아동·환경·공동체·문학 등 3천721권가량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이용은 NGO활동가들에 국한된 상황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5명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도서관 내에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2015년에는 '휴먼북'의 개념을 만들어 시민이 만나고 싶은 명사가 휴먼북이 되어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는 '휴먼라이브러리'를 도입했다.

④ 나눔문화 컬렉션

2014년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기부문화도서관'이 소장한 기부문화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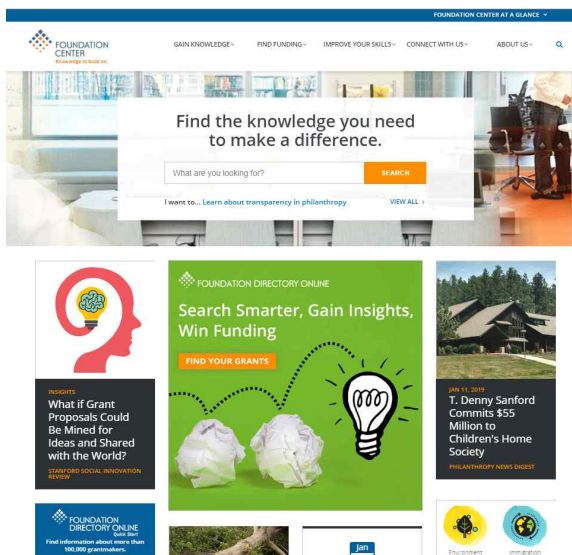
도서 400여권을 기증받아 서울도서관 내에 만들어진 공간으로, 해외 기부자나 관련 인물의 전기, 한국 나눔 전통 관련 서적 등 국내외 나눔문화 관련 도서를 구비했다. 기부의 가치에 관한 인문학적 도서도 진열한다. 서울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 대출할 수 있다.

(2) 해외 운영 사례

① 미국 Foundation Center

1956년 설립된 ‘Foundation Center’는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섹터가 자선금 및 기부금 모금을 원활히 하여 활동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집을 출간하며, 기부와 자선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재원 조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뉴욕의 본부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 5개 지역에 자선 분야 전문도서관과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2년 말 현재)세계 489개의 도서관 및 NPO 지원단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재단 12만개, 멕시코, 중국, 스리랑카 등 해외 국가 재단 1만 1000여개(한국 재단 160여개 포함)의 NPO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DB에 기반을 둔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은 ‘Foundation Center’가 ‘자선 분야 지식 बैं크’가 된 원동력이라 하겠다.

[사진18]미국 Foundation Center 홈페이지

구성	1. Gain Knowledge	2. Finding unding	3. Improve your skills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나은 자선사업을 위한 정보, 분석, 기술 제공 *파운데이션 센터가 모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경험을 적용한 정보/핵심적인 질문/기부자, NPO, 사회적 변화에 흥미 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를 후원해 줄만한 기부자를 찾기 위한 다양한 서포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량을 향상시키고 동료들을 연결하고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조언 제공

	모두를 위한 풍부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제공.		
제공 서비스	<p>(1) Foundation Maps: 자선사업을 위한 플랫폼을 시각화한 자료들</p> <p>(2) Foundation Ideas: 공유할만한 보고서, 평가, 사례 연구</p> <p>(3) Foundation Landscape: 조사,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주제 중심의 웹 포털</p> <p>(4) Foundation Research: 자선사업의 동향 연구조사</p> <p>(5) Foundation Benchmarks: peer-to-peer(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 비교가 가능한 도구들</p> <p>(6) Foundation Data: 자선사업에 관한 믿음만한 데이터</p> <p>(7) Foundation Transparency: 재단의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식</p> <p>(8) 1:1 메일링 상담 서비스</p>	<p>(1) 재단 온라인 안내 책자</p> <p>(2) 재단 온라인 안내 책자 사용 방법</p> <p>(3) 재단 온라인 안내 책자 빠르게 시작하기</p> <p>(4) 990 Finder: 개인 재단, 공공재단, NPO 단체들의 990개의 데이터베이스</p> <p>(5) 재단 통계</p>	<p>(1) 모금하기: 제안서 쓰기/기업 펀딩</p> <p>(2) 모금: 개인 후원</p> <p>(3) 관리기관의 지속가능성: 전략적 기획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영향력, 결과 및 평가</p> <p>(4) 리더십과 경영: 스타트업/커리어 개발/위원회 성장/파트너십&콜라보레이션</p> <p>(5) Foundation Center 트레이닝</p> <p>(6) GrantSpace: Foundation Center 서비스로 더 강한 사회적 분야와 재단 그 이상을 위한 기술, 통찰력, 연결 제공. 집에서 가까운 재단을 찾아 다양한 방식의 교육 제공 링크</p> <p>(7) GrantCraft: Foundation Center 노하우와 실용적인 무료 자원 제공 링크</p> <p>(8)트레이닝 전문가 소개</p>

[표3-1]미국 Foundation Center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

② 일본 NPO도서관

일본은 대부분의 NPO지원센터에서 ‘정보의 수집·편집·제공·발신 기능’을 NPO지원센터의 역할로 명시해서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센다이 NPO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NPO정보 도서관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오사카 ‘NPO프라자’, 요코하마 ‘시민활동 지원센터’, 가나가와 ‘현민활동 서포트 센터’, 교토시 ‘시민활동종합센터’, 고베 ‘커뮤니티 서포트센터’ 등에서 각

지역별 비영리 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여 각종 연구 및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 19] 일본 NPO정보센터 홈페이지

③ 타이완 자선사업 정보센터

히말라야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타이완NPO정보센터는 NPO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NPO 경영도서관

- 타겟 유저 : NPO 전문가, NPO 관련 업종 노동자, 각종 매체의 대표, 사업체들을 감독하는 정부기관, 학생, 대학 사회과학부 등
- 멤버십 : 신분증이 필요한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시스템. 멤버십에 가입하면 현장에서 무료로 서류를 찾아보고, 빌릴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 사용자 메뉴얼을 찾아볼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다.

• NPO 데이터베이스

활동 중인 3000개의 재단, 2000개가 넘는 사회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는 주요 단체들의 정보와 연락처, 활동, 재정상황 정보 제공.

• 타이완 자선사업 정보센터 홈페이지

이 웹사이트에서 NPO 단체들은 그들의 최근 활동들 (컨퍼런스, 세미나 등), 뉴스, 언론 보도 등을 올릴 수 있다. 정보를 나누고 업무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도구들을 NPO 단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만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비슷한 웹사이트들이 연결되어 있다. 하루에 평균 3000명이 방문하며 TPIC 주간 뉴스를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다.



[사진 20] 대만 NPO 정보센터 홈페이지

4. NPO도서관의 필요성

(1) NPO의 자료 저장 및 활용의 한계와 문제점

희망제작소의 NPO정보도서관과 같이 거시적인 시도와 함께 각 단체들도 오랜 시간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저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패하거나 정보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거시적 시도의 경우 각 단체의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이를 전담해서 관리할 인력 배치가 어려워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그 또한 지속성이나 책임의 문제로 인해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개별 단체의 경우 오래된 자료들이 많음에도 사업 담당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자료가 통째로 유실되거나 컴퓨터 교체, 사무실의 이주 등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대부분 기록의 생산과 수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적으로 담당해서 체크할 인원을 배치할 여력도 없으며, 자료를 저장해 놓는 공간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과거 오프라인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료 생성에서부터 보관까지 관리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창립 35주년을 기점으로 한 프로젝트로 5년여에 걸쳐 과거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 주제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완료하여 홈페이지와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창립 초기부터 자료 생산과 보관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기적 상황에 맞추어 업데이트하면서 기록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경우는 ‘성평등도서관 여기’가 문을 열면서 여성 관련 기록과 자료들이 집중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단체의 디지털 자료 생산은 대부분 내부적인 저장에 머물거나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일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라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 새롭게 NPO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신입 활동가의 경우 자료가 어떤 단체에 어떤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으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경우도 특정 활동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 이후의 단계에서야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나 단체 방문을 통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2) 시민의 힘으로 변화하는 도시를 담는 역사적 공간

시민참여로 변화시킨 시민 민주주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산하고, 시민

들이 일상적으로 공익활동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개념이 필요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시민참여의 사례를 기록하고, 성과를 정리하여 서울을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도시로서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NPO의 변화사례를 기록하고, 축적하는 전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3) NPO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는 전문도서관에 대한 요구

광우병 집회, 세월호 사건, 탄핵집회를 거치며 한국 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NPO 활동의 방향과 형태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변화를 피하는 단체 및 소규모 혹은 1인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NPO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으로 생산된 자료와 기록들에 대한 집적은 NPO 활동의 지평을 넓히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또한 NPO활동가의 교육과 NPO 간의 혹은 타 기관과의 협업에 있어서도 단단한 기초가 되어줄 수 있다.

(4) NPO와 시민들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체험적 공간

변화된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활동가들 혹은 일부 회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NPO 활동의 시대는 한계에 다다랐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통해 사회활동에 익숙해지고 일상적으로 참여할 원동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회 참여와 변화를 경험하고, 시민단체의 활동 사례를 접해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험적인 공간이야말로 참여하는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현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자유학년제가 실시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NPO 활동의 의미와 역사를 바로 알고 깊이 있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NPO단체 정보자료 보관 실태 및 수요 조사를 위한 심층면접】

참가 단체 : 경실련, 녹색교통,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함께걷는아이들,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제작소

면접 대상자 : 정책책임자 및 업무 담당자

선정 기준 : 자료를 축적할만한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 환경, 여성, 디지털 운

등을 대표하는 단체, 자료 아카이빙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단체
중 임의 선정

단체 소개 : <참고자료 I> 참조

	전담인력	자체 아카이브	자료보관 지침	일반 공개
경실련	없음	×	×	홈페이지
녹색교통	없음	×	△	홈페이지
여성민우회	없음	×	×	홈페이지
참여연대	없음	△	○	홈페이지
한국여성의전화	없음	○	○	홈페이지,아카이브
함께걷는아이들	없음	×	△	홈페이지
함께하는시민행동	없음	×	×	홈페이지
환경운동연합	없음	×	△	홈페이지
환경정의	없음	×	×	홈페이지
희망제작소	없음	×	×	

	디지털 자료 저장	일반 자료 저장
경실련	구글드라이브	보관실(비활성화)
녹색교통	NAS+구글 드라이브	보관실(비활성화)
여성민우회	NAS	보관실(비활성화)
참여연대	구글드라이브	보관실
한국여성의전화	구글드라이브,아카이브	보관실
함께걷는아이들	NAS	업무용 서가
함께하는시민행동	구글드라이브	업무용 서가
환경운동연합	구글드라이브,인트라넷	업무용 서가
환경정의	구글드라이브	업무용 서가
희망제작소	인트라넷	보관실(비활성화)

	과거 자료
경실련	상당 부분 소실
녹색교통	대부분 보관
여성민우회	상당 부분 소실
참여연대	대부분 보관
한국여성의전화	대부분 보관/아카이빙 완료
함께걷는아이들	대부분 보관/아카이빙 완료
함께하는시민행동	상당 부분 소실
환경운동연합	상당 부분 소실
환경정의	상당 부분 소실
희망제작소	상당 부분 소실

[표4-1]NPO단체의 자료보관 현황

□ 기존 단체들의 자료 저장 및 활용의 한계와 문제점

• 인력 부족

단체가 생산해낸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전담인력을 둔 곳은 전무하다. 대부분 정책파트나, 홍보/미디어 파트의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보관'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고, 중복으로라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해결해나가는 곳도 다수이다.

• 공간 부족

디지털 아카이브를 완성한 단체의 경우도 오프라인의 자료 저장은 장기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업별 담당자의 서가에서 특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거나, 별도의 보관 공간이 있다 해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보관'에 의의를 둘 뿐 의미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 자료 유실

디지털화 된 과거의 자료들은 부실한 보관으로 인해 각 단체마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유실된 상태이다. 오프라인 자료는 특히 자료 생산, 저장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담당자의 퇴사, 사무실의 이전 등으로 유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대부분의 단체가 디지털로 자료를 생산하고 온라인공유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온라인공간도 근본적인 소실의 위험이 제거된 것은 아니어서 생산된 자료들을 백업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 기록의 필요성

- NPO 활동은 연결점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자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도 많고, 담당자로부터 사업 실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솔루션이 없다.
- 단체마다 과거의 자료, 혹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자료를 모으더라도 어떻게 아카이빙 할 것인지에 관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곳이 많다.
- 대부분 단체에서는 홈페이지 상에 활동의 결과물을 올려놓지만 특정 활동의 진행, 성과 등을 알고 싶으면 단체를 방문해서 직접 요구해야 한다.
- 아카이브 교육을 받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단체일지라도 대부분이 내부 업무를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자료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 요구사항

-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의미한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매력적이고 유입 효과가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 단체별로 생산하는 주요 보고서, 토론자료집 등은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되

고 있다. 그러나 찾고 싶은 게 명확한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플랫폼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NPO의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고 어떤 식으로 보관되고 또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 시민들과의 소통의 공간, 이해의 접점이 될 곳이 필요하다.
- 단체별, 주제별 부스 혹은 전시 공간이 마련된다면 NPO 활동을 알리고 이해하는데 주효할 것이다.
- 활동가의 입장에서 직접 진행해보지 않았던 현안에 대해서 과거 사례나 다른 운동 사례를 참조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가 필요하다.
- 신입 활동가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보도자료나 논평, 성명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작은 단체의 경우 활동가 교육이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신입활동가 뿐 아니라 예비 활동가, NPO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비슷한 분야, 경험, 경력, 관심사 등의 그룹으로 묶여진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단체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홍보나 아카이브 관련 실무 교육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교육 후 실제 적용 후에 지속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

5. NPO도서관의 성격

(1) NPO도서관의 개념

NPO도서관은 매우 전문적이면서 또한 매우 대중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테라스 terrace 개념을 접목해 설명해보기로 한다.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바깥쪽으로 만든 난간을 테라스라고 한다. 테라스에는 바람도 불고, 사람들이 모이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며 일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잉여의 공간이다. 만일, 각 NPO의 공간에서 바깥쪽으로 작은 테라스를 내고 NPO의 어떤 씨앗 하나를 적절한 화분에 담아 햇볕 아래 내어놓는다고 가정해본다. 이 매력적인 테라스는 날마다 무언가 흥미로운 것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오기에 좋고 접근이 용이하며, 참여할 수 있는 계기의 다양한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다.

힘을 가진 NPO도서관은 작지만 그 자체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도한다. 매주 달라지는 쇼케이스에 대한 궁금증, 무언가 흐름을 만들고 문화를 생산하는 듯한 플랫폼은 언제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관심이 쏠리는 쪽에는 언제나 샘물처럼 에너지가 솟는다. 로봇이 아닌 사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읽으며 다음 쇼케이스를 동시에 구상한다. 자신만의 흐름이 생기고 이름에 주제가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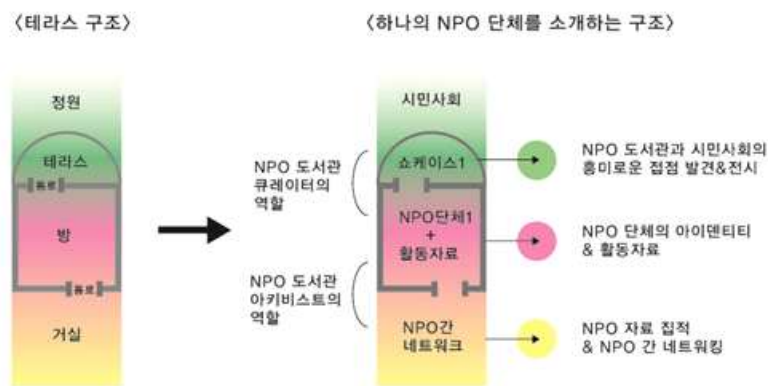
테라스에서는 늘 쇼케이스가 펼쳐진다. ‘OOO의 쇼케이스’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의 showcase 쇼케이스는 새 음반이나 신인 가수를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갖는 작은 무대(때에 따라 크게 열리기도)를 말한다. 상업적 영역에서는 상품 광고를 목적으로 신상을 품목별 혹은 주제별로 분류하여 상품을 진열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영리의 영역에서는 NPO의 매력적인 일면을 쇼케이스로 소개함으로써, NPO내부에서는 하나의 아카이브를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 쇼케이스가 세상에 소개됨으로서 일반시민의 참여활동을 자극하는 계기의 장으로서 홍보관의 역할을 한다. NPO도서관이 각 NPO에 대한 매력적인 쇼케이스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중심에서 테라스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자가 큐레이터다. NPO활동의 기억의 단층을 매력적인 쇼케이스로 정리해 확연히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계절, 사람들의 필요를 몇 개의 차원을 가지고 인지하며, 목적에 따라 정보를 판독하고 재치있게 배열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전체를 가지고 있으며, 큐레이터가 중심인 도서관에서 몇 달씩 정체되어 있는 서가는 없다.

큐레이터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료를 수집하고 아카이빙한다. NPO의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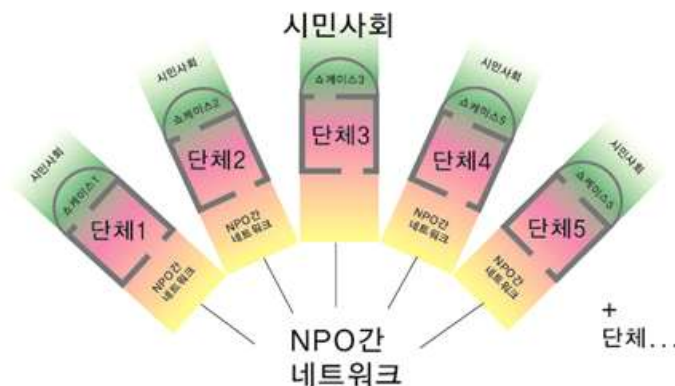
동은 일관된 흐름을 보이겠지만, 어떤 큐레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펼치고 다시 닫느냐에 따라 그 활동의 단면은 언제나 새로운 유형을 가지고 소개될 수 밖에 없다. 큐레이터는 감각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더듬이를 가진 큐레이터는 모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각 NPO들의 자료를 하나의 씨앗을 발굴하듯 새로운 형태의 화분에 씨앗을 심어 NPO 바깥의 영역에 마치 테라스를 만들 듯이 시민사회에 내어놓아 햇빛을 받게 한다. 활동의 경험을 테라스의 개념으로 추상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레이터의 액션이다.

NPO도서관의 목표는 각 NPO활동을 그대로 집적해 보여주는 서재에 머물지 않고, 도서관 큐레이터의 차원, 고유의 분류체계를 가동해 보이지 않았던 각 NPO의 매력적인 면을 하나의 쇼케이스로 열고 그 쇼케이스를 통해 시민들이 테라스에 모이게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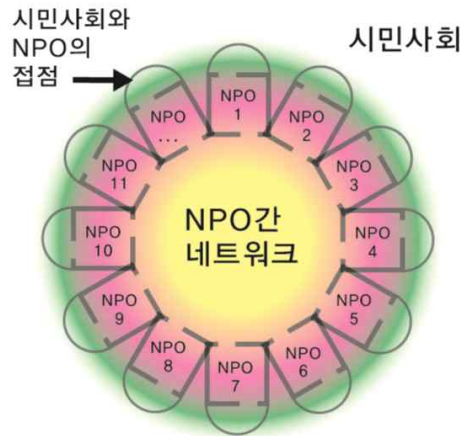


[그림] NPO 도서관의 테라스 개념도

다양한 NPO 단체 연구 & 전시의 확장



[표5-1]NPO도서관 개념도



[표5-2]테라스 개념

NPO도서관이 그들의 거실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접속지대로 작용하려면 이 도서관은 몇 개의 다른 차원의 시선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입장을 ‘차원(dimension/디멘션)’이라고 한다. 차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이나 경험치에 따른다. 어떤 차원에서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바라보는 사람의 경험과 직업 및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차원은 다른 현상(사물이나 어떤 작용이 드러나는 바깥 모양새)을 유도한다.

예시)

- 물리학적 관점의 큐레이션 : NPO들의 복잡 다양한 현상과 시대의 변화현상 사이에서 물리법칙을 찾아내 미래언어를 도출한다.
- 부동산 관점의 큐레이션 : NPO들의 임대현황과 고충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비전을 유도한다.
- 음악적 관점의 큐레이션 : 내부의 KIOSK도 담고 회자 가능한 내밀한 언어를 새로운 곡으로 작사.작곡해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소개함으로써 문화캠페인의 성격을 띤다.
- 시각적 관점의 큐레이션 :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해석한 상징코드와 해석으로 뮤지엄샵의 기능을 시도한다.

NPO도서관의 기록의 방식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온.오프라인에서 폴더별로 진열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큐레이터의 시선을 탑재한 창조적 산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패션계에 등장하는 분더샵 즉 편집샵의 쇼케이스처럼 보이지만, NPO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어서 복합기능의 숨에 가깝다.

하지만 큐레이션의 힘은 쇼케이스를 정확히 조명하므로 뮤지엄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각적 접촉지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NPO도서관에 서는 수합된 자료를 놀라운 판단력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자료를 제공한 NPO 단체들에게 조차 놀라운 테라스의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큐레이터 curator

큐레이터는 라틴어 curare에서 유래하는 나온 말로, ‘치료하다’인 cure, ‘신경 쓰다, 걱정 된다’의 care, 궁금증, 호기심을 뜻하는 curious 등과 같은 족보를 가진 단어이다. 큐레이터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성직자를 가리키기도 했는데, 17세기 후반부터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 다양한 문화유산 기관에서 컬렉션을 수집,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기 시작했다. 어떤 자료를 시대의 영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결과의 쇼케이스가 탄생하게 될까? 라는 궁금증으로 큐레이션된 NPO의 테이블을 수집해보기로 한다.

이 작업은 마치 성직자가 신도를, 또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 깊은 애정과 철학을 가지고 자료를 보살핀다는 의미에서 도서관 큐레이터를 제안한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물의 수집·기획·홍보 등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직업. 큐레이터의 업무에는 전시물의 선택과 수집부터 연구·기획까지 포함되어 있어 콘텐츠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필요하다. 기능에 따라 연구와 수집, 교육과 홍보, 전시 기획 등으로 세분화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큐레이터를 학예사라고도 부르며, 1984년 박물관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의무화 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3D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큐레이터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커지고 있다.

쇼케이스(=작품으로서의 아카이브)

NPO도서관 쇼케이스는 각 NPO 활동의 산물을 큐레이터의 차원에서 수집하고 선별해 펼쳐놓은 하나의 작품이다. 한 단체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물론이고 단체의 활동을 독창적으로 해석해 물리적 디자인으로 펼쳐내는 시각적 능력 또한 요구된다. 쇼케이스를 통해 단체의 활동에 시너지를 주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이런 방식의 쇼케이스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큐레이터의 dimension

한 쇼케이스의 완성도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시민사회와의 보이지 않는 접촉지대를 보이게 만드는 큐레이터 차원의 연금술의 영역에 해당한다.

(2) NPO도서관의 내용

① NPO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 곳

NPO도서관은 명실상부한 NPO역사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NPO 활동의 영역별 단체별 사진, 영상, 도서 등 각종 기록자료를 통해 NPO 활동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단체나 프로젝트의 홍보물, 세미나 워크샵 등에서 생산되는 정책 자료 등이 발빠르게 제공되어 시대적 화두를 함께 고민할 수 있다.

각종 교육자료, 국내외 도서, 영상자료 등을 통해 NPO 활동가 혹은 시민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 새롭게 가공해낼 수 있는 곳이다.

② 'Social'을 실현하는 도서관

NPO도서관에서의 만나는 모든 것(자료의 이용, 쇼케이스 참여, 프로그램 개발, 사서와의 대화)은 기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을 벗어난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한 개인은 사회적 고통과 사건의 와중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 그것을 벗어나고 극복하는 데 있어 긍정적 연쇄작용을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한 개인은 서울이라는 공통 공간을 구성하는 파편임을 인식하고, 그 파편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내가 몰랐던 친구를 위한 도서관, 결핍된 것을 채우고, 밀린 숙제(사회적 책무)를 하는 곳, 고통의 박물관(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함께 벗어나는 길을 찾는 곳. 그렇게 'Social'을 실현해 나가는 곳이다.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한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곳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을 표방하고 있다.

1990년 정대협이 설립된 후, 1994년 사료관 건립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고, 1999년 서대문의 작은 공간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교육관을 만들었다. 2004년, 정대협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 건립의 행보를 시작했고, 2012년 개관하게 되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효과적으로 전쟁과 여성문제에 관해 아카이빙 되어 있고, 단순한 전시 시설이 아닌 실제 활동과 연계되는 거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다.



[사진21]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_1

[사진22]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_2

• The Levinski Garden Library (이스라엘)



[사진23]The Levinski Garden Library

난민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레빈스킨가든도서관은 2010년 social-artistic urban community project를 통해 설립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책의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일상의 불행으로부터 탈출할 피난처로 여겼다. 공원은 이주 노동자들이 주말에 주로 모이는 곳으로,

두 개의 빛나는 책장(어른용/어린이용) 말고는 벽, 문, 경비가 없는 그야말로 열려 있는 도서관이다. 불법 이민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두려움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 도서관에는 영어, 암하라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아랍어, 프랑스어, 네팔어를 비롯한 15개의 언어로 된 약 3,500여 권의 책이 있다. 이 책들은 장르나 작가 이름 등 관습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감정의 색에 따라 릴레이 분류된다.

• **세월호 기억의 숲(한국)**

세월호 기억의 숲 조성 프로젝트(sewolforest.org)는 웹툰어린이재단과 416가족 협의회, 트리플래닛이 함께 추진하여 시민들의 힘으로 완성되었다. 숲은 팽목항으로부터 4.16km 떨어진 전라남도 진도군 무궁화동 산에 조성되었고, 여러 꽃나무, 작은 관목들과 함께 약 30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매년 가을마다 노란 은행잎으로 숲을 물들이며,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숲 가운데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기록된 ‘기억의 벽’이 세워져 있다.

세월호 사건은 많은 기록들을 만들어내며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기록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전 국민적으로 깨닫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치유’에 대한 담론들을 만들어냈다.



[사진24]세월호 기억의 숲

• **촛불집회와 강남역 포스트잇**

2016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2017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은 한국 사회를 꿰뚫는 화두였다. 촛불집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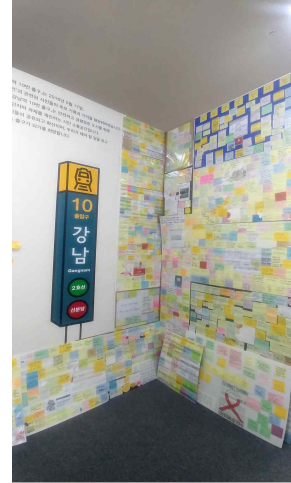
던 기록들을 쏟아냈으며 사회 곳곳에서 그것을 아카이빙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현장에는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포스트잇 메모를 통해 표출되며 사회 전반에 걸친 페미니즘 논의를 새롭게 불붙게 했다.

이후, 세계적 유래를 찾기 힘든 평화적 민주주의 실현의 현장으로 평가되는 촛불집회의 기록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이관되었고, 강남역 포스트잇들은 ‘성평등도서관 여기’에 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



[사진25] 촛불집회



[사진26] 강남역 포스트잇

③ 'Action'이 있는 도서관

지식은 텍스트나 정보의 축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전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지식은 텍스트로부터 되살려내 다시 경험으로 승화시킨 경험, 요컨대 독자 자신이 속한 세계만이 아니라 바깥 세계까지 보여주는 언어에 있다.⁷⁾

NPO도서관은 사회적으로 결핍된 것들을 함께 채워나가며 사회적 책무를 나누는 시민민주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텍스트에 있는 지식을 되살려내 그것을 경험으로 승화시키고, 자신이 속한 세계만이 아니라 바깥 세계까지 보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리나라 자발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함께 움직이고 그 경험은 다시 프로그램되는 Action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고 그것들이 곧 역사이자 자료로 축적된다.

• B플랫폼

7) 알베르토 망구엘, 「밤의 도서관」, 세종서적, 2011

책을 체험하고 책에 대한 작업을 배우고 스스로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 공간이다. 독립출판물, 아트북을 소개하고 판매하지만 책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이 또 하나의 아트북이 되어 전시된다. 책을 소비하고 전시할 뿐 아니라 체험하고 창작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다. 공간은 책을 판매하는 서점, 책과 관련된 디자인·일러스트·타이포그라피 등을 전시하는 갤러리, 워크숍이 진행되고 직접 책이 만들어지는 스튜디오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27]B플랫폼

• 녹색당과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



[사진28]녹색당과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

녹색당의 다양한 기재들과 활동 내용들을 시각 디자이너팀과 공유함으로써 아름다운 피켓을 공동제작했다. 제작된 피켓들은 활동가, 시민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소개되고 공유된다.

• London Book Art Center



한 때 프린트 사업의 중심지였던 곳을 기점으로 예술가들이 운영하고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이 곳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접근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29]London Book Art Center 모든 사람들에게 프린트, 바인딩, 출판 시설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협업, 교육, 유통을 통해, 예술가들 혹은 시민들이 책을 만들 수 있게 서포트함으로써 북아트를 발전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이 센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북아트 관련 뉴스와 북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제공하고 관련 도구, 도서, 굿즈들 또한 구매할 수 있다.

• 전시 <Posters for Bookshop>, 탈영역 유정국, 서울, 2016

2016년 탈영역 우정국에서 열린 <Posters for bookshops> 전시는 전국의 서점과 시각작업자를 연결하여 책방의 아이



[사진30]전시 <Posters for Bookshop>

덴티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한 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과정과 결과물 또한 각각의 다채로운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여 전국의 독립서점들을 흥미로운 시점과 방식들로 소개했다.

④ 작은 사물을 아카이브 하는 도서관

도서관의 가치는 도서관에 보관된 내용물과 독자가 그 내용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내용물의 양과 희귀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⁸⁾ 거시의 역사나 거시의 자료는 많다. 역사가의 역사는 주관적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개개인의 역사가 모이면 그 시대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지역에,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 시절을 아카이빙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역사책에 기록된 서울의 흔적 말고도,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만든 사건과 역사와 그 의의에 대한 접근과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역사적 사건, 의미에 대해 미시적으로(감정적 혹은 개인적) 접근하는 섹션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사건의 총체성은 디테일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⁹⁾

어떤 사건에서 정치적, 혹은 운동적인 것을 지우고 개인의 경험, 기억을 유발하는 작은 사물의 아카이브를 통해서 감성적 접근을 한다면 그 파편들의 몽타주를 통해 시민들은 보도, 미디어 등에 의해 규정지어졌던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 사회적 가청권, 사회적 가시권을 갖게 된다.

⑤ 사서가 보이는 도서관

NPO도서관을 구현할 새로운 인류로 NPO도서관 ‘큐레이터’가 필요하다. 모든 자료 구성과 분류 및 정돈 그리고 소개의 핵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 누군가 지금 여기서 시작점을 찾고, 그 점 하나를 중심으로 연결된 점을 찾고 이어가며 고유한 방식으로 NPO 사서의 세계를 열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큐레이터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간 NPO영역에서 자료정리 및 업데이트는 자체 인력으로 일부 시도되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인력 지원 없이 아카이브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난제이다.

큐레이터는 NPO활동의 기억의 단층을 매력적인 쇼케이스로 정리해 확연히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 NPO도서관의 목표는 각 NPO활동을 그대로 집적해 보여주는 서재에 머물지 않고, 도서관 큐레이터의 차원, 고유의 분류체계를 가동해 보이지 않았던 각 NPO의 매력적인 면을 하나의 쇼케이스로 만

8) 알베르토 망구엘, 「밤의 도서관」, 세종서적, 2011

9)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들어내는 것이다. 하나의 쇼케이스는 기록되고 두 번째 쇼케이스가 이어진다. 시즌 별로 예비해 도서관 큐레이터가 릴레이로 작업을 할 때 서로 다른 쇼케이스의 마지막 문은 새로운 것을 설계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 다시금 열린다. 그들은 활동가일 수도 있고, 시민들일 수도 있다.

또한, 큐레이터는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내어놓는 질문에 답하는, 존재 자체로서의 도서관이다.

⑥ 감각의 중추(네트워크 허브)가 되는 도서관

기존 공공도서관만의 네트워크가 아닌, 각 지역의 작은 책방의 네트워크, 작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의 네트워크의 허브가 필요하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생명력 있는 축수가 필요하고 그것의 중추가 되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연대를 위해 고민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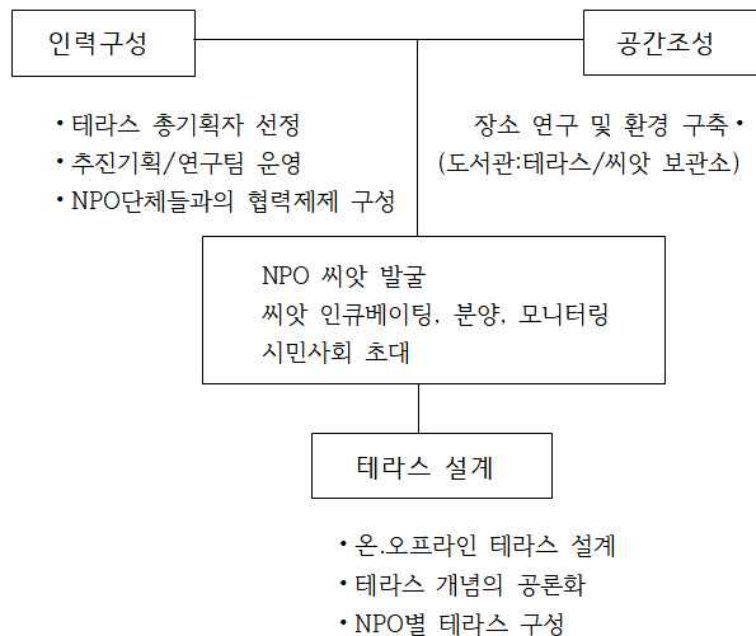
6. NPO도서관 조성을 위한 제안

(1) 절차적 제안

NPO 활동의 역사를 담아내는 것은 오랜 기간 해당 영역의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밝힌 여러 가지 이유로 요원하기만 하였다. NPO도서관이 활동가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과거의 실패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단계별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도서관 큐레이터와 NPO활동가, 시민을 양질의 네트워킹으로 묶어내고, (테라스라는)공공적 도서관 개념 아래 펼쳐놓을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인 사회적 연대, 사회적 치유의 목적을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NPO활동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도서관 시스템을 설계하고, 현재의 자료에서부터 확실하게 업데이트 되도록 한 후, 과거의 자료들을 긴 호흡으로 찾고, 다듬고, 보존해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NPO도서관의 개념은 테라스와 큐레이터로 대표될 수 있다. 따라서 NPO도서관의 시작은 테라스를 구성해낼 수 있는 총기획자의 선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획팀 혹은 연구팀을 구성하여 NPO 단체들과의 협업 아래 테라스에 내어놓을 씨앗(초기 프로그램)을 만들낸 후, 시범적으로 그 씨앗을 키워 운영하면서 테라스의 디테일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씨앗은 개별 NPO의 테라스에 심어질 쇼케이스의 재료의 개념이다.

[표6-1]NPO도서관 설치 프로세스

(2) 인적 제안

큐레이터의 힘에서 시작되는 NPO도서관의 특성상 인적 구성은 그 어떤 도서관에서보다 중요하다. 특히 NPO 영역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내는 전문 공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NPO도서관의 아카이빙도 일반적 도서관과는 다른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NPO활동의 전반에 관한 이해가 필수이다.

큐레이터는 NPO도서관의 개념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PO도서관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매우 크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양성해 나가는 교육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정보, 자료의 속성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NPO 활동, 각 단체의 역사와 동향, 사회적 이슈에도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아카이빙해서 NPO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은퇴한 활동가, 경력 단절 활동가, 장기 자원봉사자, NPO 활동이나 사회현상 연구자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교육해서 질 높은 큐레이션을 확보해야 한다.

(3) 프로그램의 제안

모든 프로그램은 큐레이터의 큐레이션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활동가들의 연구와 활동을 촉진시키는 단초이고, 시민들이 'Action'을 만나는 시발점일 뿐이다. NPO도서관에서의 경험치는 다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NPO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큐레이터의 특별한 쇼케이스(전시, 워크숍, 독서회, 토크콘서트 등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하다)를 접한 활동가나 시민들이 그 경험치를 확대 재생산해내서 다른 차원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진행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NPO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보할 시그니처 프로그램과 시민 및 활동가들의 참여로 만들어내는 기획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테라스' 위에 놓이고, 다양한 메이킹 워크숍을 생산하는 '테라스'는 기억이 아닌 경험의 장으로 시민사회에게 매력적으로 제공된다. 산만하지 않고 성격이 분명한 워크숍을 통해 문화적 굿즈들이 시민들과 함께 시리즈로 생산된다.

(4) 공간적 제안

현대 도서관은 장소적 특성에 집중한다.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장소에 위치가 결정되고 있고,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과 공간이 공공도서관 계획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제시되고 있다.¹⁰⁾ 모든 활동이 대형 공공도서관에 편중되기 보다는 지역이나 전문영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나의 허브도서관을 발판으로 각 도서관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NPO도서관은 시민운동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 모든 공간은 역사성 혹은 장소의 특정성과 결합할 때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의 결합이 궁극적 목적인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이자, 시민주권을 실현시켜냈던 장소성을 갖는 곳을 입지 조건으로 한다면 NPO도서관의 활용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10) 임호균, 「지역특성별 사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과 복합시설 계획」, 도서관정책기획포럼, 2017

7. 결론

초창기 종교, 복지 영역의 활동에서부터 90년대 다양한 시민운동의 대동과 최근의 1인 NPO의 등장까지 NPO 영역의 역사는 꽤 길고 깊다. 여러 분야에서 백서 형태나 시민운동사와 같은 출판물이 발간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NPO 활동을 통해 생산해내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지 못하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여성의전화 아카이빙 작업의 경우 창립 35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확실한 필요에 의해 접근하는 능동적 이용자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을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접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빈도는 매우 낮다. 대부분 단체의 경우 일부 목록이나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고, 사업 담당자의 컴퓨터나 서가에서 '존재'만 확인받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NPO 영역의 역사나 활동의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NPO 영역의 기록들은 그 자체로 시민정신의 증거이자 한국 사회의 시대적 궤적이며, 다시 시민들을 NPO 활동과 함께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는 단초이다. NPO 활동가들도 온오프라인을 망라해서 NPO 활동 자료를 포괄하고, 매력적으로 시민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다. NPO도서관은 그런 시대적 사명과 현실적 요구를 통해 선택되어진 도구이다.

공간 기획의 기본은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이다. 더불어 이용자적 관점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장소로서 기획되고, 무엇에 특화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도서관이라면 일반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세울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NPO도서관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NPO 영역이 갖는 전문성과 일반 시민들에게 열려있고 시민들을 끌어들이야 하는 개방성을 동시에 갖는 NPO도서관은 애매한 그 무엇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테라스'의 개념을 차용하여 NPO도서관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함께 설명하고자 했다. 그것은 NPO영역의 전문성이 여타 학문적 기술적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 경험과 논의에 반복하여 노출되는 시민이 무의식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제3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향해 노출된 테라스를 통해 각 각의 NPO들은 자신들의 쇼케이스를 열어보일 수 있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쇼케이스를 접하면서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통해 NPO의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되고, 테라스 너머의 광장에서 스스로 쇼케이스를 만들어낼 힘을 기르고 활동하게 된다.

더불어 테라스를 안내할 기재로 ‘큐레이터’를 선택하였다. 현대 도서관에서도 사서의 역할에 대한 담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 도서관의 새로운 사서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와 자료가 재창조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되기까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NPO활동 영역에서 자료의 생산에서 수집, 보관까지의 관리를 ‘(해당 영역에서의 일정한 경험치를 갖고 있는)사람’이 담당하고, 그 능력껏 새로운 아카이브로 탄생시키며, ‘사람’들을 향해 내놓는 구조는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NPO도서관은 NPO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 곳이며, 사회적으로 결핍된 것들을 함께 채워나가며 사회적 책무를 나누는 시민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곳이다. 즉, 공공의 이익,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나누는 ‘Social’을 실현하는 도서관이다. ‘Social’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자발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NPO도서관에서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함께 움직이고 그 경험이 다시 프로그램되는 Action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곧 역사이자 자료로 축적된다.

NPO도서관은 ‘사람’에 집중한다.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 모든 것은 NPO도서관 큐레이터를 통해 다루어진다. 큐레이터는 역사의 기록자이자, 활동의 설계자이고, 교육의 안내자이다.

NPO도서관은 단일 존재가 아니다. 공공의 영역, 상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연대를 위해 고민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이 모든 것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NPO단체 및 활동가들과 시민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고, 온라인은 기술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NPO활동가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홍보채널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큐레이션 해내야 한다.

또한 NPO도서관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NPO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데이터베이스들을 찾아내고 아카이빙해내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NPO도서관은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기재다. 고통이 산재한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프로그램화 해나가면서 해결법을 찾는 공동의 장이다. 그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치유가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잘 정돈된 역사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는 좁은 차원에 머무를지도 모른다. NPO도서관은 민주주의 도시 서울의 목격자이자 행위자였던 시민들의 역사를 증명해내고, 다시금 써나가는 첫 단추이자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I

인터뷰 참가 단체 소개

■ 집중 인터뷰 참가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ccej.or.kr/>

1989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시민·청년·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단체이다. 사회적·정치적 부정부패, 건전한 시민의식의 고양, 빈부 격차 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산활동의 활성화를 중요 목적으로 한다.

활동 내용과 영역은 소득의 공정한 분배문제, 선거감시, 부정부패 추방, 환경보호, 제도개혁 등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경실련의 독특한 성격은 단순한 정책비판에 머물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 내에는 정책대안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가 17개 분과로 구성되어 공청회·토론회·월례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또한, 경제정의연구소(사), 경실련통일협회(사), 경실련도시개혁센터(사), 갈등해소센터(사), 시민권익센터 등과 같은 특별기구도 운영한다.

반정부 민주화운동이나 여성인권운동, 기독교사회운동 등에서 벗어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운동의 선두주자이다.



녹색교통

녹색교통운동 <https://www.greentransport.org>

1993년~

시민의 교통권 확보와 친환경적 교통 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1998년 전국 각 도시별 교통문화지수를 첫 조사한 이래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보행권 회복 캠페인을 시작했다.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교통 정책 전환, 교통약자의 교통권 실현, 대중교통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실현 등을 위해 실태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캠페인, 교육 및 장학 지원 등을 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국도 지방도에 인도 설치 운동, 보행권 네트워크 활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모니터링, 자전거 통학 교육을 전개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철도문화의 개선을 위해 철도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안전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오염 모니터링 사업과 '차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속가능교통위원회, 자동차환경위원회, 경차위원회, 자료정보위원회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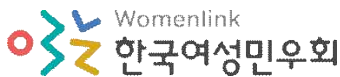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과 연대함으로써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단체명 중 '참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및 그 밖의 모든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으며, '연대'는 학연, 지연, 국경을 넘어 공익과 정의를 위해 협력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2004년 이래 유엔(UN)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인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여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 체도를 강화하는 시민주도의 권력감시,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특권과 특혜를 해소하여 경제를 민주화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시민의 사회경제권리 강화,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연대하는 국제시민협력, 시민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주체를 형성하는 시민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1개의 활동기구(의정감시센터·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사회복지위원회·노동사회위원회·경제금융센터·조세재정개혁센터·민생희망본부·평화군축센터·국제연대위원회·공익제보자지원센터)와 4개의 부설기관(공익소송기관 공익법센터·참여사회연구소·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느티나무·청년참여연대)을 두고 있다.

매월 참여연대 회원 소식지 <월간 참여사회>를 발간한다.



한국여성민우회 <http://womenlink.or.kr/>
1987~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로, 성별로 차별받지 않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고, 여성의 사회 참여에 제한이 없는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지향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생활의 가치와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가족·건강·미디어·반성폭력·소비조합(생활협동조합)·교육 분야에 걸쳐 주요사업을 전개한다.

창립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직장내폭력추방운동,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근로자과건법 제정 반대운동, 사이버공간 여성권리찾기운동,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확보운동,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운동 등 각종 여성·노동 관련 사회운동과 캠페인,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한국여성의전화 <http://hotline.or.kr>
198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운영하는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수료한 여성운동가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한 여성들을 위해 상담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이다. 2009년 '여성의전화'에서 '한국여

성의전화'로 개편하였고, 전국에 25개 지부를 두고 있다.

여성폭력추방운동, 평등평화마을만들기, 지역여성 미디어운동, 결혼이주여성운동, 이혼여성운동,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운동, 교육사업, 국제연대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한국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운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가정폭력 · 성폭력 · 이주여성 · 성매매 상담소 32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쉼터 10개



함께 걷는 아이들 <http://www.withu.or.kr>

2010년~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창단한 사회복지법인이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문화, 교육, 복지 부문에서 소외되거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음악사업, 학습사업, 청소년 지원 사업, 악기 전달 사업 등이 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프로그램 '해본다학교'를 통해 자료아카이빙을 진행한 바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action.or.kr>

1999년~

사이버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한 단체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와 창의적인 제안, 생산적인 변화를 더하고자 행동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다. 캠페인과 시민교육 등 대중적 영역, 예산감시와 기업 사회책임 등의 전문적 영역에서 공정한 일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운동 영역에서의 주제별 온라인 운동 웹사이트 운영, 온라인시위, 온라인 시민교육, 웹진 발행 등 디지털시민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1993년~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인간의 삶과 지구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결성된 민간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이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환경오염 피해자 중심의 반공해운동이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1993년 시민 중심의 전국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 공추련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이던 8개 민간 환경단체(서울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진주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광주 환경운동시민연합, 대구 공해추방운동

협의회,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마산·창원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옥포녹색연구회)가 통합되어 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다.

환경을 인간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생명체로 보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8년 6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특정분야협의자격을 획득하였고, 2002년 6월 지구의 벗(FOE) 회원단체로 가입해 국제 사회에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하 전문기관으로 시민환경연구소, 에코생활협동조합, 월간 <함께 사는 길>, 환경법률센터, 시민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지역 조직이 53개에 이른다.



환경정의 <http://eco.or.kr>

1992년~

지구생태 보호, 토지공공성 강화,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 환경 정책 및 대안 연구 등 환경정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태사회 건설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구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와 자연 이용 과정에서 사회, 지역, 생물학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아동과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건강권 확보 등 세대간 환경 정의 실현에도 힘쓴다. 중점사업으로 어린이가 건강한 초록학교 만들기, 안전한 먹거리 운동,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피해 줄이기, 기후변화 대응활동, 사회약자 환경권 보호 운동을 벌인다. 또 수도권 집중 및 과밀 반대 운동, 토지공공성 확보 운동, 4대강 개발사업 저지 운동, '강살리기 네트워크' 연대 활동, 생태하천 가꾸기 운동, 환경정의를 위한 이론과 정책 개발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초록사회본부, 다음지킴이본부, 에너지 및 대기 운동본부, 생명의물센터, 토지정의센터, 환경정의연구소, 시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있다.



희망제작소 <https://www.makehope.org>

2011년~

당시 '21세기 新실학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립한 희망제작소는 한국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독립 민간연구소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과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정부 산하의 연구소나 기업 경영연구소가 각각 국가 정책이나 기업 경영활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활동을 한다면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사회의 대안을 연구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에서 차별성이 있다.

희망제작소가 펼치는 다양한 실험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희망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조례연구소·농촌희망본부·자치재정연구소 등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 and Do Tank"를 비전으로 내세운다. 사회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사회창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과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시킨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낡고 황폐화된 마을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만드는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새로운 경제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사회적경제 연구', '시니어'와 사회공헌이라는 가치를 연결시키는 '시니어사회공헌' 등의 분야에서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공공리더(지자체장, 공무원)와 시민리더를 육성하는 활동과 지속가능한 시민안전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재난안전 연구'를 하고 있다.

■ 아카이브 모범 단체 사례 : 한국여성의전화

35년 동안의 단체 역사를 아카이빙 하는 작업을 최근 완료.

2018 디지털 유산 어워드 공익성 부문 수상

Q 디지털 아카이브

A 단체 35주년인 올해 마무리 되었다. 거의 5-6년이 걸렸다. 오래된 자료들을 창고에서 꺼내서 스캔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창고에 들어가 있던 자료를 열어서 무슨 자료인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은 사진으로 찍고 오프라인에 저장하면서 리스트업 했다. 오프라인에 정리하고 온라인상에도 아카이브를 만들었다.

아카이브에 자료 축적뿐 아니라 역사, 스토리를 담고 싶었다. 시민들이 한국여성의전화를 알 수 있도록 스토리를 넣고 콘텐츠를 구성했다. 80년대에 나온 소식지, 발행 자료부터 모두 읽었다.

Q 전담인력

A 온전히 아카이브에만 투입된 인력은 없고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병행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자료를 파악하려면 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서 자원활동가에게 맡길 수도 없었다.

Q 디지털 아카이브 이외에 자료 저장

A 자료집은 스캔해서 PDF로 만들고 한 장짜리 낱장은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보관한다. 모든 자료를 다 아카이브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하고 있다.

자료집 뿐 아니라 리플렛, 전단지, 스티커 같은 홍보물, 영상제작 같은 것도 자료실에 업로드 한다. 자료를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카테고리화 하고, 자료 안에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큰 과제이다. 활

동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가 높아야 할 수 있는 작업이다.

Q 내부 자료 저장을 위한 온라인 도구

A 구글 드라이브나 오픈된 프로그램을 쓴다.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Q 새롭게 생산되는 자료의 관리

A 아카이브는 일년에 한 번 업로드 한다. 온라인 아카이브를 만들 때 오픈 소스를 사용했는데 아카이브 툴 자체가 일반 활동가들이 쓰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코딩 관련, 서버 관련 지식이 있는 활동가만 업로드 할 수 있다.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오픈 소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카이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활동가가 쉽게 쓸 수 있는 자료실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Q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든 후 시민들의 접근성

A 우리가 만든 아카이브는 역사를 파악하고 흐름을 알기 위한 아카이브이다. 자료를 찾기에 좋은 설계가 아니다. 그래서 자료 찾기에 용이한 자료실을 따로 만들고 있다.

Q 활동가에게 필요한 공간, 혹은 디지털 아카이브

A 의미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 활동가들의 자발적 자료 축적 유인 방법

A 우선 활동 홍보의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전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누군가 성매매 방지법을 알고 싶어 하면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고, 지금은 어떻게, 쟁점은 무엇인지 등 스토리를 보여 줄 수 있는. 우리가 아카이브를 만들 때 자료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이전의 선배들이 어떻게 활동해 왔고, 어떤 흐름으로 지금까지 왔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Q NPO도서관

A 자료의 저장뿐 아니라, 그때그때 테마를 만들어서 자료를 전시하거나 시민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떨까. 최근에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주최한 NPO 국제컨퍼런스처럼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사람들이 활동하는지 볼 수 있고 다양한 테마와 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참고자료 II
전문가 인터뷰 요약

■ 임호균 / 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교수

충남도서관 건축 총괄 기획자

민간 전문가(도서관 전문가)

충남도가 한 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을 민간에 맡기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민간인 전문가에게 총괄 기획을 맡긴다. 공무원은 2년 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못 간다. 충남도서관을 완성하는 동안 담당 문화 예술과장이 세 번 바뀌었다. 담당 국장도 세 번 바뀌었고, 담당 공무원 사무관 주무관도 계속 바뀌었다. 바뀐 담당 공무원이 실제 외부 업체들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관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한 제도였다. 충남도서관 총괄 기획을 맡고 총 6년 동안 작업을 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상 공모 결정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당선된 공모의 설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했다. 모든 결정 권한이 민간 책임자에게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결정 권한을 수용하고, 서포트 해야 한다. 충남도청 문화정책과와 충남도의 건설사업본부 등 관련된 부서가 서포트 해주는 것이다. 도서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고 싶다는 생각에 경제적인 보수는 열악했지만 책임감을 갖고 했다. 설계부터 시공 과정, 가구 디자인, 제품 디테일, 카펫트 색, 타일 색 등 모든 것에 관여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을 갖고 밀고 나갈 수 있었다.

충남도서관

도서관은 공공시설이다. 이용자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용자들의 행위에 맞춰 공간이나 가구 디자인이나 배치가 이루어지고 색도 맞춰야 한다. 이용자들의 이용과 전체 공간과 가구가 하나가 되는 공간이 되면 이용자들이 반복해서 오게 된다. 책을 보는 공간은 도서관의 기능 중 일부이다. 21세기의 도서관은 불특정 시민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다. 홈리스들에게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시설 중에서 관공서는 업무 보는 특정한 몇 사람들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서관은 이용자 관점만이 아니라 이용자와 운영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모두가 중요하다.

도서관은 더 이상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일종의 힐링의 공간이다. 쉬면서도 힐링할 수 있고, 책을 보면서도 힐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노는 것을 보면서도 힐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들어섰을 때 전체적으로 편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모든 도서관들이 다 똑같은 수는 없지만, 어떤 개념을 일관적으로 갖고 접근하면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용한다. 도서관은 이용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용자

물리적 공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달라진다.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의 분포가 달라진다. 또 지역에 따라서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의 성격은 다르다. 장소의 성격은 공간이 만든다기 보다는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만든다고 봐야 한다. 그래야 특성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다. 도서관 특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지 디자이너가 만드는 건 아니다.

전문 도서관

전문도서관은 이용자 그룹이 서로 다르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자료실의 경우 자료실이 무척 크다. 그곳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넣을 것인지 말지가 중요 고민이었다. 경복궁에 위치하고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확 늘어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런데 미술도서관이라는 것에 중점을 뒀서 전문가들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빼버렸다. 그곳은 일반인들이 공공미술관처럼 쉽게 들어오는 공간이 아닌데 그렇다고 전문가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다. 어떻게 목적을 갖고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운영계획을 갖고 디자인을 해야지 운영계획 없이 디자인 할 수는 없다. 보통 어떤 특수한 전문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는 목적동선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책을 보러 가는 곳이지 일반인들이 가는 곳은 아니다. 실제 전문도서관 이용자들은 웹사이트나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새로운 도서관

텍사스에 Biblio Teck가 있다. 모든 자료가 디지털로만 되어 있어서 필요한 면적이 기존의 10분의 1이다. 아이패드 600개를 보유하고 책 대출을 아이패드로 해준다. 학교가 끝날 때 학생들이 몰려온다. 저소득층 가정에 e-book을 볼 수 있는 아이패드를 대출해 주는 형태이다. 디지털 기기를 빌려주지만 그것을 통해 책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NPO도서관

만들고자 하는 시설에 과연 누가 올 것인가, 어떤 행위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너무 많은 행위들을 담으려고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다. 장소가 만들어졌을 때 이용자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NPO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전문성에 집중하는 장소가 만들어지면 다른 프로그램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정확한 목적을 갖고 작업해야 된다. 운영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정보를 아날로그로 볼 수도 있지만 디지털로 볼 수도 있고, 영상자료를 볼 서비스를 넣을 것인가, 사람들이 만나서 세미나 할 수 있는 방을 만들 것인가, 한 달에 한 번 사람들이 모여 회의 할 수 있는 공간 만들 것인가, 그게 폐쇄적이지 않고 오픈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문화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시간 동안 전체 도서관이 그 행사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고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의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NPO도서관이 다양한 기능을 하려면, 도서관에 아카이브 기능도 있어야 되고 전시 기능도 있는 라키비움 같은 공간 구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도서관 사업의 어려움

예산이 항상 문제다.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에서 나와야 하는데 의회나 행정 쪽에서는 아웃풋이 나오는 곳에 예산을 쉽게 준다. 도서관, 자료실 이런 곳은 가시적으로 생산 되는 게 없다 보니 계속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다보니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우리 같이 도서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과정에서 왜 이런 도서관이 필요한지, 근거 자료로 얘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도서관이, 유럽 도서관에 비해 인구 대비 시설 면적이 10년 뒤져 있다. 도서관의 인구 대비 면적은 GDP와 똑같이 본다. 인구 대비 도서관 면적이 높아지면 서비스 면적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의 공간이 좀 더 럭셔리해진다. 지금까지 양적으로 조금씩 팽창했다. 매년 연간 약 30개의 공공 도서관이 신축된다. 양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후엔 리모델링 하면서 질적으로 변해야 한다.

도서관의 필요성

요즘은 디지털화 된 서비스를 집에서도 얻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 건 아날로그가 인간의 감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을 볼 때의 촉감이 중요하다. 디지털로 보는 활자와 종이 활자는 다르다. 자료와 도서관이 디지털화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는 책 읽는 공간이 더 많아야 한다. 사람들은 활자를 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디지털화 된 자료는 클릭하면 바로 뜨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 영향으로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떤 상황이 닥치면 깊이 고민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려 하는 것이다. 주변 환경 때문에 속도를 빨리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이런 속도 전쟁에서 좀 늦출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면 인쇄본 책의 출판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더 늘어났다.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은 인문학이다. 디자인이나 기술은 인문학이 창조하는 것을 실현할 뿐이다.

■ 이정희 / (주)이가디자인랩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컨설턴트 단장

도서관의 새로운 경향

최근의 도서관이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발적 교육, 스스로의 액션이 일어나면 좋겠다. 지금은 프로그래머가 문화센터 프로그램 만들듯이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려면 한 없이 투입만 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현대 라이브러리라든가, 별마당 도서관 같은 곳도 기업이 집객을 위해서 도서관 개념을 빌렸을 뿐 진짜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철저하게 집객이 목적이다.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다른 곳으로 유입이 되도록 한다.

문화 재생, 도서관 사업에 대해 연구하다 알게 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서관 공간에서 독서실을 원한다고 한다. 돈 주고 가는 독서실 말고 공공에서 그런 공간을 서포트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을 만들 때 그 공간을 없애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다.

도서관 도시로 유명한 군포시는 단순한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라 연령별로 세분화하는 도서관을 구상하고 있다. 도서관 문화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 들일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도서관과 체육관, 도서관과 공연장을 같이 묶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도서관을 쇼핑센터와 연결시키는 시도도 많다.

외국의 사례

북유럽의 한 섬에 있는 호텔은 업사이클, 슬로우를 모토로 명소가 되었다. 망해가는 호텔이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리노베이션 해서 체험 공간이 된 사례이다. 유럽은 EU 체제 아래 오히려 로컬적인 특징을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일본도 다시 지역적인 것으로 가고 있다. 책을 찾아 보다 내용 중에 너무 신선하고 우리도 시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출판연도를 보면 10년 이상 지난 경우가 많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는 츠타야 서점도 20여 년 전에 시작된 거고, 요즘 유행하는 작은 서점들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평범한 이야기다.

NPO도서관

NPO도서관이라고 하면 자발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연구단체처럼 기능하지만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연구로 인해 액션이 생기는 구조였다. 작물 재배, 화학 실험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실제에 적용해서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본질이 아닐까. 스스로 고민하고 실험하고 거기에서 다른 액션들이 발생하는... 요즘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상상력을 키우라고 하는데 직접 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들다. 아이콘에 사용되는 전화기 모양을 아이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결국 NPO도서관은 사용과 실제에 대한 체험에 의해 습득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대카드에서 운영하는 쿠킹라이브러리에는 많은 자료가 있고, 심지어 수많은 재료를 직접 냄새 맡고, 맛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요리를 선택해서 돈을 내고 각자 만들어서 먹는 게 끝이다. 거기서 발전되어서 그걸 한국식으로 만든다든지 다른 방식의 요리에 응용하든지 하면 그게 또 자료나 책이 될 수 있다. 즉 쿠킹라이브러리의 액션이 나오고 그 액션을 통해 또 다른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체험해 보는 걸로 끝이다.

NPO도서관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메이킹 하고 다시 자료를 워킹하는 구조여야 하지 않을까. 콘텐츠가 완벽하게 고민이 안 되어 있으면 텅빈 공간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도서관의 기능

디지털 화면은 화면이 아무리 커도 한 면만 볼 수 있고 입체적으로 볼 수 없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펼쳐서 볼 수 있다. 신문을 지면으로 보는 것과 모바일로 보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신문을 통으로 읽었을 때는 연결이 되면서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이 떨어진다. 도서관에서는 펼쳐서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감각으로 모아야 한다. 컴퓨터가 모아주는 것과 달리 주변 것을 같이 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있다.

출판

출판이 점점 더 소량 생산의 개인적 레이블로 가고 있고 그 선두가 아티스트들이다. 아티스트들이 책을 직접 만드는 행위로 자기 작업을 생산한다. 또 예술이 예전처럼 영구적으로 불변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책의 형태다.

문화재생

지역에서 문화재생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긴 호흡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설명회나 설득은 충돌로 이어지지만 함께 과정을 만들어 가면 서로 납득하는 지점을 만들 수 있다. 동해시의 채석장을 재생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8주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예전에는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반목하고 대립했는데 문화재 관련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주민들이 스스로 발제하게 하니까 차분하게 의견을 발표하고 듣는 자리가 되었다. 자신들의 관심사를 연구 영역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메이커스 플레이스

많은 단체, 공간에서 메이커 플레이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다. 지금 현재로는 메이커스 플레이스에 3D프린터만 갖춰놓는 정도이다. 메이커스 랩은 기존의 도서관에 다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사기로 복사하고 자료를 갖고 나갈 수 있고, 출력할 수 있고... 나름의 메이커스 랩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제는 진화된 다른 형태로 가야한다. 예를 들어 목공시설을 도서관에 넣을 수도 있다. 외국에서도 메이커스 랩의 시작 단계에는 우왕좌왕 하고 실천적인 사례, 완벽한 대안은 못 내놓고 있는 것 같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양산하기 직전, 제조하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를 메이커스 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되면 이상적이다. 목공처럼 노동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워크숍 공간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영국의 건축대학원 바틀렛은 교내에 머티리얼 인스티튜트가 있다. 무기 재료, 유기 재료, 모든 종류의 재료가 있어서 새로운 재료를 통해 저절로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 커다란 워크숍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창업한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학교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의뢰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서 제공해서 학생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덕수궁 돌담길, 한강 등의 마켓에 나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수공예품이다. 목공방에 대한 인기도 높고 스스로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유일무이한 것, 대량 소비가 아니라 질적인 소비, 자신이 직접 만든 걸 점점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아카이브

검색해도 잡히지 않는 자료를 자료화 하는 게 먼저이다. 자료로 생각하지 않던 것을 자료로 바꾸는 작업. 누군가 먼저 하면 선례가 될 수 있다. 처음만 잘 하면 다음에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료 그대로의 보존과 기록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에 스토리텔링을 넣은 것을 아카이브라고 생각한다. 한 번 가공된 것이 아닌 원래의 자료를 파일업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화두는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거대담론의 역사라든가 정보는 있는데 개개인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역사가의 역사는 그 시대의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고 주관적이기도 하다. 개개인의 역사가 모여 있으면 후대에 그것들을 한꺼번에 읽으면서 그 시대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개개인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소스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풀어야 하는 이슈이다.

■ 박영숙 / 느티나무 도서관 관장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도서분류

장서의 일반적인 십진분류 외에 느티나무 도서관만의 '사회를 담는 컬렉션'이라는 분류법으로 도서를 도서관 1층 중앙에 배치한다. 세월호 1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기억할까를 고민하다 나온 시도인데 지금은 7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섹션의 이름과 들어갈 책의 목록은 치열한 사서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G섹션은 '다양성과 존엄'이라는 큰 구분 아래 1. 차별과 낯섬을 넘어, 2. 학대에 제삼자는 없다, 3. 죽음의 자기결정권, 4. 나이듦에 대하여', 5. 정신질환에도 사회적 맥락이 있다, 6. 어느 장애인 이야기, 7. 인간과 비인간 동물, 8. 인종차별의 민낯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각 카테고리에 맞는 책들이 선정되고 비치된다. 이 섹션들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 제목이 바뀔 수도, 구성하는 책이 이동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섹션이나 카테고리가 추가될 수도 있다.

아카이브

19년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분야의 아카이빙은 어려운 작업이다. 느티나무 도서관에서도 커뮤니티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서울기록원과 아카이빙에 대한 교감을 나누면서 성평등박물관 여기 등에 각 분야 아카이빙 작업을 독려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각 단체나 조직들이 그러한 시도를 해야 한다.

사람

느티나무 도서관의 사서는 13명이다. 사서는 공공도서관 사서에 비해 다양한 일을 한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학 같은 전공 분야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사서들은 책을 선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하고 낭독회 이야기극 등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자원활동가들이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문 스크랩이다. 스크래퍼들은 '가족관계의 변화', '노동', '농치기 아까운 기사', '미래기술', '생활 속의 재난' 등의 분야로 기사를 스크랩 한다. 신문 스크랩을 하다 보면 사회의 흐름, 이슈 등에 대해 전문가 수준이 된다. 자원 활동은 어쩌다 한 번 참여하더라도 부담이 없도록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 스크랩을 위한 모임에서도 책의 낭독을 하고 시작한다.

낭독회

느티나무 도서관에는 여러 시민 참여 모임이 있다. 그중에서도 낭독회는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 독서회가 아니라 낭독회인 이유는 책을 미리 읽어야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코스모스 같은 집에 꽂혀 있기는 하지만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을 낭독회에서 낭독하면서 그 책을 대표하고 함축하는 구절을 찾아내면 그것만으로도 책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책 한 권을 다 읽는 동력을

언을 수 있다. 그 구절을 책에 끼워 놓고 도서관 내 여러곳에 놓아둔다.

미래

느티나무 도서관은 이상적인 도서관을 만들려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여러 사람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이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도서관 모델이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으면 한다. 실제로 몇몇 공공도서관에서도 느티나무 도서관의 시스템을 가져가길 원해서 사서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 홍영택 / 문탁네트워크 운영위원 청소년공동체 파지스쿨 교사

공부

문탁네트워크는 9명의 친구가 함께 책을 읽는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이반 일리치의 책을 읽기 시작되었고 이반 일리치는 지금도 문탁네트워크에서 계속 읽고 있는 책이다. 논어 등 중국의 고전 역시 계속 함께 공부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정해진 분량의 책을 각자 읽어 오고 매번 한 사람씩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발제를 한다. 한 권의 책을 다 읽으면 에세이를 쓰는 것이 의무이다. 한 권의 책을 같이 읽는다는 것은 같은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공유는 정신의 공유이다. 현재는 책을 읽는 세미나 외에 외부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책을 외워서 낭송하는 낭송회, 몸으로 표현하는 액팅 등도 진행된다.

정신

문탁은 단순한 지식공동체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 실천하는 것, 공부를 통해 삶을 바꾸는 것을 지향한다. 경제, 자본의 속성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 마을 작업장 ‘월든’을 열었다. 처음에는 목공소로 시작해서 점점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상품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대하고자 한다. 마을 공유지라고 불리는 카페 공간은 세미나, 어린이 서당 등 여러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방에서 당번을 정해서 밥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함께 밥을 먹는다. 밥을 한 번 먹으면 공부를 몇 달 같이 한 것처럼 친해지고 직접 밥을 하면 1년 이상 함께 한 것 같은 관계가 된다. 문탁에는 ‘선물한다’는 개념이 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선물하고, 집에 재료가 많으면 재료를 선물하고, 혹시 돈이 많으면 돈을 선물할 수도 있다. 공부, 관계, 활동이 연계되고 순환되는 공동체이기를 바란다.

미래

처음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고 아이들의 서당도 만들면서 공간을 마련했다. 2014년에 카페 공간도 문을 열면서 참여하는 인원이 확 늘어서 현재는 100명 정도이다. 규모가 커지니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느

껴서 전체적 체질 개선을 위해 많은 세미나를 줄였다. 문탁은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공동체이다. 다툼이 없는 단체가 아니라 다툼을 쉽게 드러내는 단체이다. 우리는 생활인이고 공부를 통해 삶을 공유한다. 공부와 삶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목표이다. 최근에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 ‘파지 스쿨’을 만들었고 올해는 청년예술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독립적인 법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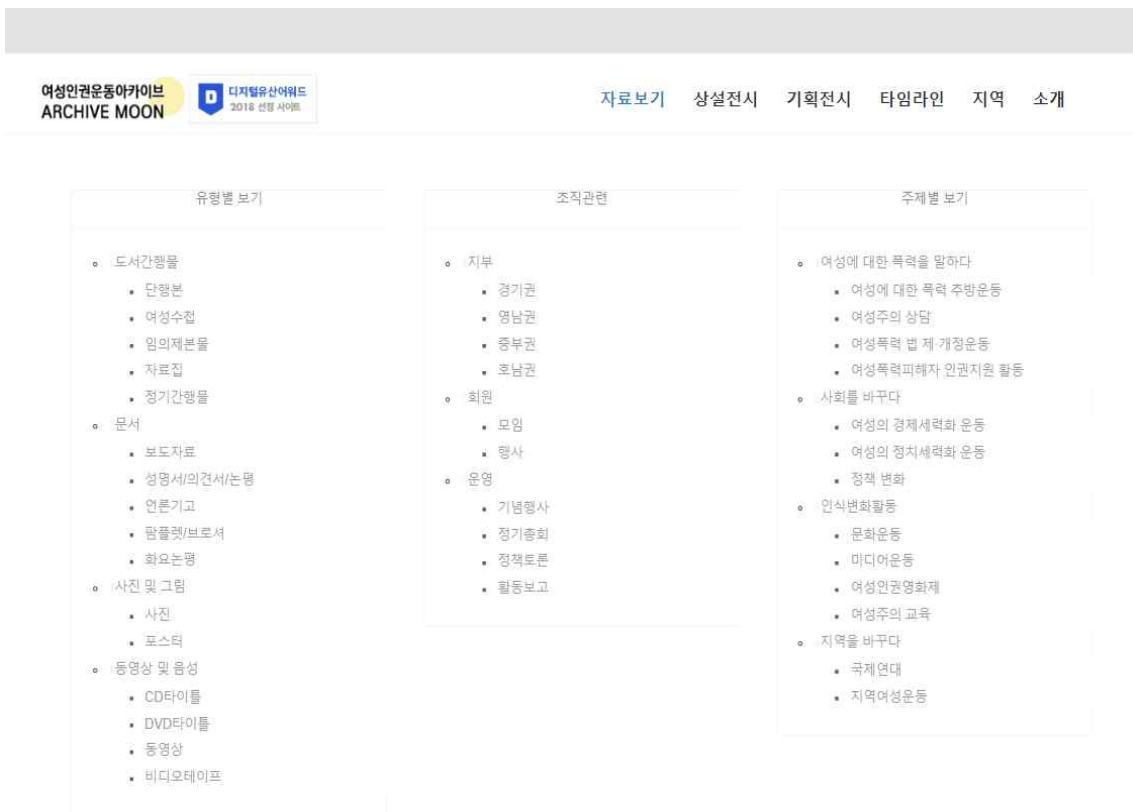
참고자료 III

디지털 아카이브의 예시

■ 여성인권운동 아카이브(한국 여성의 전화) <http://herstory.xyz>

한국 여성의 전화의 ‘여성인권운동 아카이브’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여성인권운동 30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30여 년간의 상담통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아내폭력·가정폭력 추방을 위한 다종 다양한 도전들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 여성의 경제세력화 운동 등 여성인권운동의 시작과 마무리, 성과에서 과제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유형별, 주제별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별 자료, 활동가 및 자원활동가의 이야기, 한국최초의 여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위한 피난처인 ‘쉼터’의 변천사도 담고 있다.



‘상설전시’와 ‘기획전시’에서는 마치 오프라인의 전시를 만나는 것처럼 특별한 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펼쳐놓는다.

전시섹션

여성의전화 창립

2009년 녹번동에 사옥을 마련하기 까지 이사에 이사를 거듭했던 공간들과 그에 얽히고설킨 이야기들, 1987년 만들어진 한국최초의 여성폭력피해상조자들을 위한 피난처인 '쉼터'의 변천사도 펼쳐집니다. 이러한 여성인권운동을 만들어 온 사람들인, 여성폭력피해상조자와 회원, 활동가, 전문위원, 기부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전화가 한 최초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현재 전국 25개 지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조직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게이지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발표된 기사 중 진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상담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한국 최초로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습니다. 여성의전화를 찾는 여성폭력 생존자들의 상담 기록을 추적하고 분석한 이 자료들은 기준에 축소되고 은폐되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 간에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현실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쉼터, 30년

한국여성의전화는 창립 때부터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임시 피난처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당시 폭력 피해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도 갈 곳이 없어 또다시 폭력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절박하게 호소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0주년

2017년은 가정폭력방지법과 처벌법 제정 20주년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3대 법안 중 하나인 가정폭력 관련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획전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0주년

아내폭력이라는 '문화' 제정 과정 개정운동 끝이 아닌 싸움 그런 가족은 필요없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내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개인적인 일', '집안일'로만 여겨졌다. 아내폭력(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여성의전화 창립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여성의전화는 한국 최초로 아내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해 그 심각성을 드러냈는데, 70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아내구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2.2%(299명)의 여성이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했다고 응답했고, 그 발생 빈도나 폭력의 형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① 아주 일상적인 폭력



1983 여성의전화 개원식



제1회 궁극토론회



여성의전화 개원 기념 자료집



개정 20주년 사회연구보고서

당시는 아내구타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고, "남편에게 맞는 여성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며, 남의 집 가정사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상담을 하면서 분명해진 것은 아내구타는 대부분 결혼 초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정사로 보기에 피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정도가 무척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피해여성들은 오랜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불안, 공포, 자아 상실, 무기력과 판단 능력 상실 등 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황폐화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도 불구하고, 아내구타 피해 여성들은 몰이해와 잘못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보호받거나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내가 참으면 남편이 좋아질 것이다" "여자는 결혼에 실패하면 끝장이다"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사회적 메시지는 그들로 하여금 독송을 다해 결혼 관계를 지키도록 했고,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폭력 상황에서도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친정이나 친구네 집으로 피신하려 해도, 폭력 남편의 집요한 추적과 협박으로 인해 영두조차 내기가 어려웠다.

② 죽거나, 죽어야만 끝나지 않도록

1990년대에는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특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1991년 남00 사건부터 1993년 이00 사건, 1994년 이00 사건, 1995년 김00사건 등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온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정당방위 사건, 1995년 권말석(가명) 사건, 1996년 이00 사건 등 아들이 폭력 아버지를, 장모가 폭력 사위를 살해한 정당방위 사건은 가정폭력 관련 법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1994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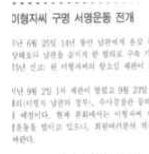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지부 및 다른 여성단체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안을 준비하며 법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발족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전국에서 85,505명의 서명을 모아 1996년 10월 국회에 법 제정을 청원했다. 이후 3개 정당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제정되지는 못한 채 그해 회기를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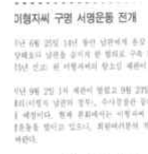
여성인권운동사례집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1991 가정폭력살인
정당방위 구명운동



1993 아내폭력정당방위
이00 사건 구명운동



1994 가정폭력 정당방위
이00씨 구명운동

1997년 4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재촉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남편의 구타로 숨진 여성들의 가족이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00 사건 이외에도 남편의 구타로 참혹하게 숨져간 여성들의 사건은 꺼져가는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에 다시 불을 붙였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에 남편의 폭력으로 숨진 여성들의 사건이 계보되면서 같은 해 5월 21일, 한국여성의전화와 범국민운동본부는 '때 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 억울하고 두려웠을, 고통에 찬 여성들의 혼이었다. 더구나 같은 날, 18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유00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져 갔다.



1997 때 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

③ 모두의 바람을 모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과정에는 많은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 당사자들이 함께했다. 1994년 우리 사회에서 처음 열린 아내(가정)폭력 사진전의 첫날이었다. 많은 사람이 사진을 보며 오기던 와중에 보따리를 든 여성이 진행하던 우리를 찾아와 한 사진을 가리키며 "제가 바로 저 사람이예요"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금방 그가 피해자임을 알아채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이은자 선생을 통해 우리 '윌터'로 안내했다.

이런 사례는 그 후에도 많았다. 1996년 초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러 온 한 여성이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다고 물으며, 여서 빨리 이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이 만들어진 후 서울여성의전화에서 가해자 프로그램을 받고 있던 한 가해자의 아내, 즉 아내폭력 피해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신문에 가정폭력관련법이 생겼다고 기사가 났기에 기사를 으려서 안방 벽에 붙여놓았다면서,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혼자 속으로 '네가 나 또 때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은근히 과시했다며,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수많은 우리 사회의 아내(가정)폭력피해자들의 호소와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네이버 라이브러리 <https://library.navercorp.com/>

이용안내	자세히	휴관안내	자세히	공지사항	자세히
월-일 09:30~19:30		2019. 02 (February) 2/4, 2/5, 2/6, 2/11, 2/23, 2/25		[휴관일 안내] 02월 휴관일 안내 [휴관일 안내] 01월 휴관일 안내 [휴관일 안내] 12월 휴관일 안내 [휴관일 안내] 11월 휴관일 안내	19.01.29 18.12.26 18.12.04 18.10.29

네이버 라이브러리는 Magazine, Design, Encyclopedia, IT의 네 분야에 특화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아카이브도 네 가지 분야의 소장 도서에 대해 쉽게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Magazine 자극과 영감을 주는 장서 1만 7천여 권

Design 새로운 정보와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국내외 잡지 250여 종

Encyclopedia 지식을 깊고 넓게 탐독할 수 있는 백과사전 1천 300여 권

IT 네이버의 뿌리이자 글로벌 서비스의 기초체력이 되는 장서 7천여 권

Magazine

Design

Magazine	Design	Encyclopedia	IT		
건축/인테리어 건축 인테리어 조경디자인 도시/공공디자인 전시/디스플레이 공간브랜딩 가구디자인	일러스트 일러스트/캐릭터 그래픽티 드로잉 페인팅/도안	그래픽 디자인 일반 편집/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러터링 포스터/장부디자인 브랜딩/로그 패키지/POP 웹/모바일디자인 광고/영상디자인	산업디자인/UX 제품디자인 채색/색채 차/항공디자인 패션/섬유 UX/UI	예술 미술사/미술이론 미술작가/작품 조형/공예 리빙/DIY 사진 영화/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소규모/독립 출판 단행본 매거진 건축/인테리어 일러스트 그래픽 산업디자인/UX 예술

출판국별 도서보기

Design > 15,780건



오미마켓 = Ohmimarket



아파트먼트 = apartments



Object



제발, 그냥 하라고



연필로 여행 : 동남아편



Documentation : design ...

IT

Magazine	Design	Encyclopedia	IT	
인터넷/네트워크 보안/인증/해킹/바이러스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넷캐칭/비즈니스	컴퓨터공학/IT 컴퓨터공학 IT일반 테크니컬커뮤니케이션 IT기타	프로그래밍/언어 프로그래밍/일반 기타언어 웹프로그래밍 정보처리/알고리즘 C	운영체제 리눅스 유닉스 임베디드시스템 ARM MAC기타 Windows	데이터베이스 Data/DB 오라클 SQL서버 데이터베이스론

IT > 7,770건



스프링 5.0 마이크로서비스...



(밤을 새워 준비해 손을 다...



트렌드 코리아. 2019. 소비...



(대한민국 맥 사용자 대표 ...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



Youtube : online video a...

Encyclopedia

- Magazine
- Design
- Encyclopedia**
- IT

종합백과

21세기 세계대백과사전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Britannica Encyclopedia of Art and Artists

Britannica Encyclopedia of World Religions
 Britannica Illustrated Science Library
 Britannica Visual Dictionary
 Britannica World Atlas
 Compton's Encyclopedia
 Encyclopedia Americana
 The World Book Encyclopedia

총서/시리즈

<구르메 수첩>시리즈
 <그레이트북스>시리즈
 <디스커버리>시리즈
 <라투스 세계 지식사전>
 <뽕달있는 책들>시리즈
 <아웃도어 북스>시리즈
 <와세다 리포트>시리즈
 <우리가 아직 몰랐던 세계의 교양>시리즈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시리즈
 <네이버 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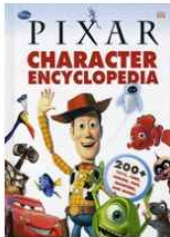
<죽기 전에 꼭 1001>시리즈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크로노스>총서
 <크세주>시리즈
 <올라서 50>시리즈
 <하룻밤의 지식여행>시리즈
 <ABC 북>세트
 <DK 대백과>시리즈
 <DK Reference Books> series
 <네이버 포스트 북> 시리즈

TAG검색

와인 | 전통주 | 향신료/소스 | 계절음식 | 김치 | 커피 | 맥주 | 술 | 치즈 | 바이크 | 영색 | 우주 | 돌고기 | 공룡 | 새 | 야생화 | 국내명산 | 고양이 | 인체 | 자연 | 지구 | 동물 | 개 | 곤충 | 식물 | 나무 | 풍경 | 약초 | 신화 | 만화 | 예술감상법 | 문학가 | 우리 잇것 | 사할 | 역사 | 여가 | 여성 | 페미니즘 | 건축 | 한옥 | 할리우드 | 공예 | 사진

Encyclopedia > 2,511건

최신순 | 제목순



(Disney) PIXAR Charac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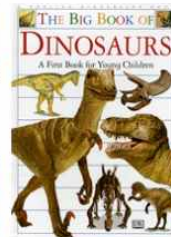
(Disney) PIXAR PEDIA : D...



(Disney-PIXAR) MONSTE...



(Marvel) The Avengers E...



(The big book of) Dinsa...



(原本) 三國史記 : 한글그레...

■ OPEN ARCHIVES(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archives.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2002년 1월 29일 설립되었고, 관련 사료를 수집해 ‘오픈 아카이브’를 열었다.

민주화운동 역사에 관한 기본 정보와 활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민주주의 지식정보센터’를 표방하며, 민주화운동의 경험이 담긴 기록과 기억을 수집·정리·보존하여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념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건,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민주화운동 사건과 인물에 대한 구술도 채록해서 저장하고 있다.

자료컬렉션, 사진아카이브, 자료콘텐츠, 구술아카이브의 4개 카테고리가 있다. 자료컬렉션에서는 주요 민주화운동(4.19혁명/한일협정반대운동/3선개헌반대운동/유신헌법반대운동/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 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하고, 연대별로 1960년대 4건, 1970년대 33건, 1980년대 57건, 1990년대 9건의 사건별 자료가 담겨있다. 구술아카이브에는 13개의 부문 아래 80개의 카테고리로 아카이빙 되어 있다.

2016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기록들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이관받아 기록될 예정이다.

2018년 현재

1. 등록 사료의 계층 통계	
그룹(GROUP)	517
시리즈(SERIES)	3,034
파일(FILE)	6,818
아이템(ITEM)	575,712

*아이템 단위의 등록 건 수(매체별 분류)

문서류	518,257
박물류	2,284
사진필름류	51,830
음성영상류	3,340

2. 디지털 이미지를 구축한 사료 통계	
디지털 이미지 구축 사료	256,178건(2,500,099페이지)

문서류	199,785건(2,322,131페이지)
박물류	95건(363페이지)
사진필름류	47,972건(47,995페이지)
음성영상류	1건(페이지)

자료 컬렉션

주요 민주화운동

- 4.19혁명
- 한일합정년대운동(6·3운동)
- 3선개헌반대운동
- 유신헌법반대운동
- 부마항쟁
- 5.18민주화운동
- 6.10민주항쟁
- 연대별 분류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자료 컬렉션

주요 민주화운동



4.19혁명

- 2·28대구학생시위(2·28대구민주화운동)
- 3·15마산시위(3·15의거)
- 4·18고려대생시위및피습사건
- 4월19일시위
- 4·25대학교수단시위
- 제2차대선시위



사진 아카이브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승만...
- 4.19혁명
- 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 10월유신과 종신집권의 몰락
- 5.18민주화운동
- 제5공화국과 민주화운동
- 6.10민주항쟁
- 문민화와 민주화로의 여정
- 기타 사진일만

사진 아카이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승만 ...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는 형국을 선언한다...

4.19혁명
이승만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6일 해외 독립운동 인사들 중 가장 먼저 국내에 ...

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이승만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일어난 시민, 학생들의 피의 대거로 민주주의를 쟁취하였...

10월유신과 종신집권의 몰락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혁명'의 목적이 달 성되면 곧 민간에게 정부를 이양하고 ...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사진은 텍스트가 말해주지 못하는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60,000컷의 한국 민주화운동 사진을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즈에서 보세요.

- Home > 자료 콘텐츠
- 자료 콘텐츠**
- 자료이야기
 - 오늘의 아카이브
 - 영상콘텐츠
 - 카드콘텐츠

자료 콘텐츠

자료이야기




1972년 유신연방이 확정된 뒤, 이 땅의 백성들은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단합의 운동이 아니라서 남아돌지 못한다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1973년 8월에 발행된 김대중신문사에서는 백 장판에...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돌봄처럼 번진 유신헌법반대운동


1972년 유신연방이 확정된 뒤, 이 땅의 백성들은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단합의 운동이 아니라서 남아돌지 못한다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1973년 8월에 발행된 김대중신문사에서는 백 장판에...

- Home > 구술 아카이브
- 구술 아카이브**
- 4.19혁명
 - 원외협상시대운동
 - 2선개헌반대운동
 - 6.10민주쟁쟁
 - 1970년대 학생운동
 - 1980년대 민주화운동
 - 노동운동
 - 농민운동
 - 민간운동
 - 인권운동
 - 여성운동
 - 재야운동
 - 해외민주연사

구술 아카이브



구술기록은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만드는 중요한 역사의 증거입니다.



4.19혁명

왜 학생들과 시민들은 피를 흘려 가면서도 시위를 멈추지 않았을까?

정삼기
구술자 정삼기는 1942년생으로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현천리에 사 태어났다. 1960년 당...

이재현
구술자는 제주 서 소해 오현리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민주당 비열당원으로 가입하였다. 고등학교...

오석보
오석보는 1939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4.19 당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생이었다...

이문교
구술자는 1960년 3월 자유당에 장기간으로 기도하는 부친상기교 동안 정 부통령 선거로 사...

참고자료 IV

참고 문헌

「서울시민 도서관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지역도서관 중심으로」, 2018
 「서울시민 독서문화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8
 「장노년층 서울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18
 「공공도서관 시민대토론회 결과보고서」, 서울도서관, 2018
 「지역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정책의 역할의 제고」, 제55회 전국도서관 대회 자료
 「도서관정책기획포럼 자료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7

<베어매거진 bear vol.10 Memory>, 디자인 이음, 2018.01
 <로컬숍 연구 잡지 브로드컬리 2호_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브로드컬리,
 2016.09

델핀 미누이(임영식), 「다라야의 지하 비밀도서관」, 더숲, 2018
 스텐트 켈스(김민수), 「더 라이브러리_유혹하는 도서관」, 우리교육, 2018
 안유정, 「다녀왔습니다 뉴욕 독립서점」, 왓어북, 2018
 유종필, 「세계 도서관 기행」, 웅진지식하우스, 2018
 백찬화.김병록, 「작은 책방, 우리 책 쫓 팝니다!」, 남해의 봄날, 2017
 서울도서관, 「책방산책1,2」, 서울책방, 2017
 마스다 무네아키(장은주),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 위즈덤하우스, 2017
 홍윤기.정용주, 「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 교육공동체벗, 2017
 송하엽, 「22세기 건축」, 효형출판사, 2017
 조금주,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들」, 나무연필, 2017
 우석훈,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문예출판사, 2017
 윤정인.이부록, 「책들이 머무는 공간으로의 여행」, 알마, 2017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마스다 무네아키(이정환), 「지적자본론」, 민음사, 2015
 로버트도슨(최성욱), 「공공도서관」, 한스미디어, 2015
 제임스 W.P.캠벨(이순희), 「세계의 도서관」, 월 프라이스, 사회평론, 2015
 신승수.임상진.최재원, 「슈퍼라이브러리」, 사람의무늬, 2014
 박영숙,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진 않겠습니다」, 알마, 2014
 강예린.이치훈, 「도서관 산책자」, 반비, 2012
 이용훈.김은미.박완 외, 「사서가 말하는 사서」, 부키, 2012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북미 도서관에 끌리다」, 우리교육, 2012
 알베르토 망구엘(강주헌), 「밤의 도서관」, 세종서적, 2011
 주디스A. 시스(이우정.박희수.김태훈), 「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 이채, 2005
 스가야 아키코(이진영),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지식여행, 2004

2018년

NPO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간개념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21일(SNPO 2018-B-009)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 소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 화 02-734-1109

전 송 02-734-1118

메 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http://snpo.kr> www.facebook.com/seoulnpocenter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 NO - ND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